

3670
380, P11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内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軍事

北傀의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評価

북한 경제력
북한 군사력
대위부하

研究執筆責任

張 和 洙

(略歷)

高麗大學校 政經大經濟學科 卒業(1963)
高麗大學校 太學院 經濟學碩士(1966)
高麗大學校 太學院 博士課程 修了(1977)
高麗大 詳細問題研究所 研究員(1971)
高麗大, 淑明大, 韓民大, 弘益大, 崇田大 講師(1966~1976)
國防大學院 助教授(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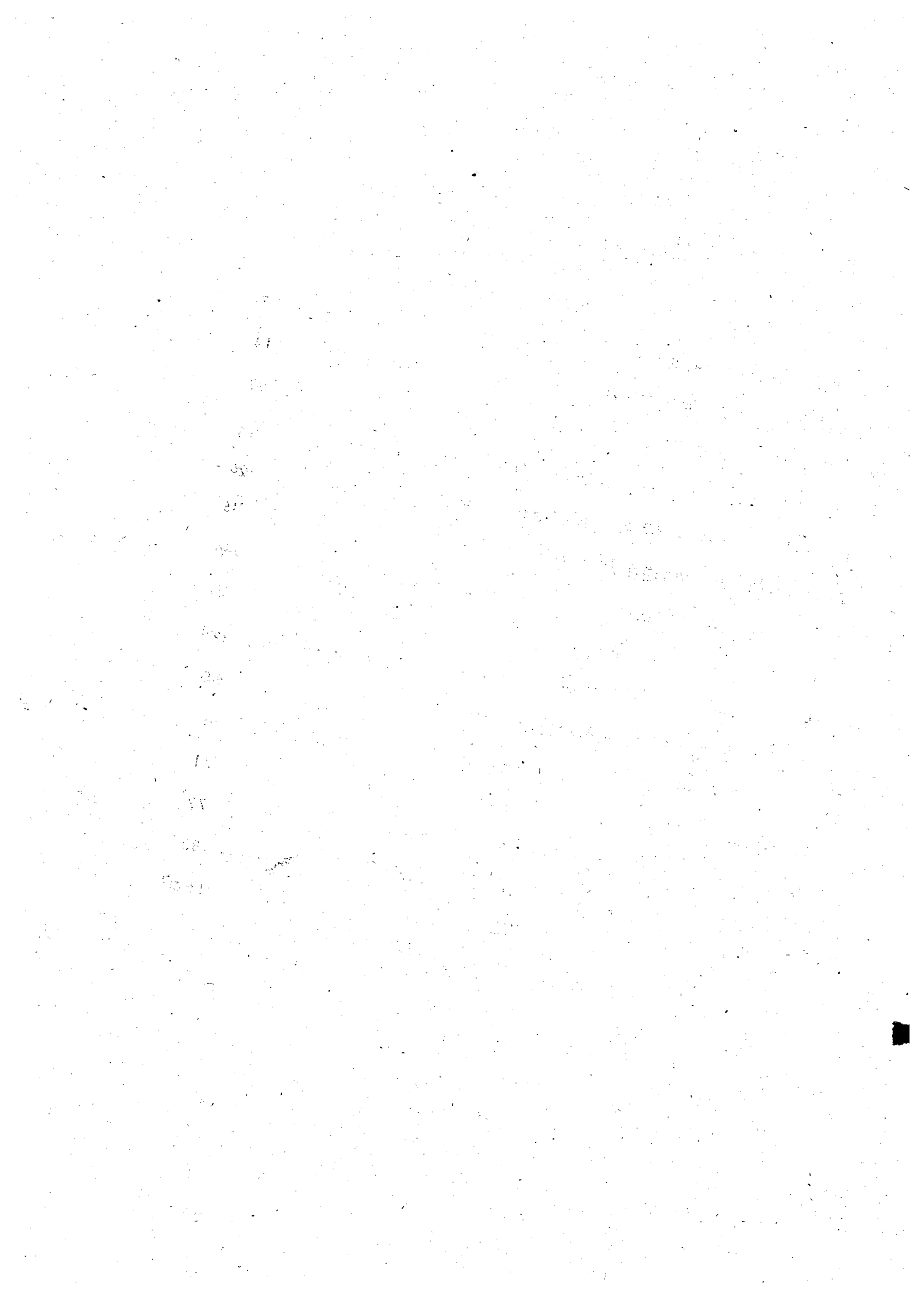
刊行責任 李 杔 熙(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一 序 論	3
二 北韓의 恒久的 戰爭經濟	7
三 北韓의 經濟的 戰爭潛在力	14
四 軍事力과 軍事潛在力	20
五 北韓의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 分析	26
1 GNP 와 1人當 GNP의 軍事潛在力	26
2 經濟成長과 軍事潛在力	36
3 産業力量과 軍事潛在力	44
가 工業의 部門別 産業潛在力	54
나 農業部門의 産業潛在力	64
다 社會間接資本의 産業潛在力	65
六 北韓의 軍需産業力量과 國防資源配分	69
1 北韓의 軍需産業能力	71
2 北韓의 國防資源配分	79
七 北韓의 對外貿易과 經濟潛在力	83
八 結 論	100



一. 序 論

北韓에서 全經濟의 軍需經濟化를 指向하는 戰時經濟體制를 經濟의 軍事潛在力 理論으로 풀이 해볼때 먼저 留意해야 할點은 그네들의 "이데오로기"에 맞추어 政治經濟學的 接近이 要請된다고 하는 事實이다.

오직 社會主義的 戰爭理論과 軍事戰略에 立脚된 國家指導의 原理가 곧바로 軍事力の 土台가 되는 모든 經濟力量을 集結시키고, 國力の 次元에서 軍事所要가 提起하는 軍需能力을 經濟的 軍事潛在力속에서 導出하는 이른바 社會主義式 軍產複合體系의 基本骨組를 構築한다는 事實이다.

最近에 蘇聯 社會主義의 軍事經濟에 관해서 마치 美國등 西方諸國에서 軍部와 財閥들이 結託하는 產軍複合體 보다도 더욱 높은 次元에서 社會主義式 重工業軍需産業의 最優先原理를 이들 國家獨立下에서 體系적으로 定着되는 事例를 指摘하여 社會主義式 軍產複合體라고 일컫고 있지만, 이에 덧붙여서 北傀와 같이 民族經濟의 生存圈을 全經濟力의 軍事經濟化로 結集시키는 경우 最上의 軍產複合體라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國防과 經濟의 同時發展」이라는 大前提下에 「軍需工場을 훌륭하게 建設하고, 一層發展시켜 人民軍隊의 技術裝備를 強化하고 全人民의 武裝에 必要한 武器와 各種의 軍事技術機械를 원활히 生産하며, 全國을 要塞化하기 위한 대대적인 防衛工事に 많은 勞力

과 資材를 注入해야 한다」라고 提示하고 있는 基本路線이야말로 軍産複合體系 위에 全經濟力의 軍事經濟化를 構築하는 北傀式 經濟的軍事潛在力의 特質이다.

그러므로 北傀에서 모든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은 결국 「恒久的 戰爭經濟體制」로 集大成되며 지금까지도 執拗하게 '스타린'식의 一國社會主義原理를 自力更生의 基礎로 삼고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은 國防, 經濟建設의 同時發展으로 더욱 有機的 高密度化를 指向함으로써 軍事的 經濟力量을 鞏固히 하고 있다고나 할것이다.

北傀라고 하는 特殊한 戰爭經濟體制를 圍繞하고 以上の 視角에서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을 分析해 보고자 하는 問題意識이 提起되게 마련이며, 이를 위한 基礎理論을 우선 '클라우스·노어'教授의 軍事力과 軍事潛在力 (Klaus Knorr, Military Power and Potential) 에서 經濟力量 (Economic Capability)이나 經濟的 軍事潛在力 (Economic Military Potential)을 援用하여 北傀의 戰爭經濟에 適用해 보고자 試圖해 보았다.

分析의 焦點은 主로 軍事力의 本質과 軍事潛在力의 概念을 클라우스·노어教授의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 (Economic Capability and Military Potential)의 原理에 의해서 適用해 보고, 이어서 北傀의 恒久的 戰爭經濟의 現狀分析을 試圖하여 北傀의 戰爭潛在力이 얼마만큼 動員될 수 있는가를 計量的으로 測定해 보기로 한다. 또한 理論的인 面에서 經濟의 軍事潛在力 (Economic Military Potential)이 실제적으로는 經濟의 戰爭潛在力 (Econo-

mic War Potential)의 擴大概念이라는 모델을 크라우스·노어 教授의 理論을 들어 整理해 보고, 이같은 範疇속에 北傀의 經濟力 量의 顯在力과 潛在力을 軍事經濟의 擴大概念속에서 推論해 보기로 한다.

北傀 經濟力 量의 骨幹이 되는 國民總生産의 形成과 比較基準을 整理해서 仮処分剩餘의 國防資源의 規模 및 配分形態를 把握해 보고 1人當 GNP가 지닌 經濟力 量의 比較를 國際通貨換算에 의해서 檢討해 보며, 國防과 經濟建設의 同時發展을 人民經濟計劃을 통해서 高速成長시킬때 이들 高速經濟成長率이 軍事經濟力 量으로서 如何히 寄与하는가를 물어 보기로 한다.

物動計劃이 爲主로 되는 北傀의 軍事經濟潛在力은 무엇보다도 産業潛在力으로 表出되기 마련인데, 특히 工業의 部門別 軍事潛在力을 開陣해 보고, 社会間接資本의 脆弱性에 의한 軍事潛在力의 漏出을 認識하면서 軍需工業力 量을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며, 國防資源의 規模와 實際配分을 把握해 본다.

한편 北傀의 經濟力 量은 軍事經濟로 인하여 國內均衡의 破壞는 말할 수 없으려니와 對外均衡의 破行性으로 인하여 貿易収支赤字와 累積債務에 시달리고 있다. 軍事力 增強으로 인한 輸入急増 및 輸出餘力의 喪失은 軍事潛在力에 있어서 致命的打撃을 받는 것으로 看做되며 이에 관한 分析을 試圖해 보기로 하였다.

北傀의 軍事經濟가 現代物量戰의 樣想에 副應해서 軍事力 造成의 모든 軍裝備供給을 最大로 集中시키다 보니 이를 自力更生의 아우

라로키化 및 一國社會主義의 重工業軍需經濟의 運行法則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長期的인 傾斜生産方式에 의해서 破行相을 免치 못할 것으로 歸結된다. 이같은 軍事經濟에의 偏寄性을 北傀라고 하는 特殊한 對象에 맞추어 現代物量戰爭의 概念에 결들인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의 理論을 適用시켜, 이를 現狀分析함에 있어서 새로운 研究接近에 의해서 그 큰 意義를 實現시키는 功績을 찾아 볼 수 있는 反面 다른 한편 無理한 理論展開도 따르는 것 같고, 또한 北傀의 軍事經濟에 관한 資料貧困으로 因하여 事實을 事實대로 把握해 보는데 本質的인 隘路가 介在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經濟的 軍事潛在力의 理論에 의해서 北傀의 軍事經濟를 透視해 보고, 北傀의 戰爭經濟體制를 軍産複合體系로서 檢討해 보는 點에서 그나름대로의 새로운 意味를 충분히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고 할 것이다.

二. 北韓의 恒久的 戰爭經濟

共產主義式 戰爭理論과 党軍의 性格을 充實하게 反映하고 있는 北傀의 經濟的 軍事潛在力은 오늘날 總力戰 및 核時代의 國防經濟가. 지닌 屬性으로서의 「恒久的 戰爭經濟」로서 規定된다. 다만 資本主義陣容에서 大恐慌이후 景氣對策으로서의 大規模 有効需要의 副出을 圖謀하여 왔다거나 팻시즘의 國防經濟가 資本主義体制의 留保위에 統制經濟計劃 즉, 이른바 「新經濟体制」에 의해서 「生命圈」(Lebensraum)理論에 따른 經濟의 軍事化(Militarization of Economy)와는 달리 北傀는 '스타린'式 一國社會主義의 體制論理에 立脚해서, 이른바 人民解放戰略에 따른 人民戰爭力量을 指向하고 있으므로 戰爭의 性格規定이나 이를 뒷받침해야 되는 軍事力의 造成과 經濟力量 및 經濟的軍事潛在力이 다 같이 人民武裝力, 또는 人民經濟(民族經濟) 그리고 全地域要塞化로서 有機的 構成과 統一作業을 遂行하는 側面에서 平時에도 恒久的 戰爭經濟를 取하고 있는것이 典型的 特徵이다.

'맑스·레닌'主義 政治經濟學辭典에는 戰爭과 經濟를 規定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戰爭은 交戰國의 經濟諸條件에 密接한 關聯을 가졌다. 戰爭은 그 萌芽形態로부터 “生産의 第1條件이고 交通의 1形式이다……戰爭은 暴力的手段을 가진 政治의 一形式이며 經濟 그 自体가 戰爭의 運命을 決定한다.」

따라서 共產主義國家의 戰爭觀은 生産의 한 形態요, 交通의 한

形式으로 보았고, 戰爭의 運命은 經濟가 決定한다고 보는 物質的 基礎의 第1主義이며, 이것이 唯物史觀의 基本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軍事力에 관한 概念規定에서 「軍事力은 生産技術 및 工業의 發展'템포에 依存하고 그것은 經濟關係, 즉 人口 1人當 工業生産量 生産物의 人口 1人當 需要의 規模와 直結되고, 工業生産으로 表現된다」라고 하여 軍事力은 生産技術이나 工業生産物 數量을 指標로 삼고, 1人當 工業生産量으로 計測된다는 點을 밝히고 있다.

'스타린'도 二次大戰時 戰爭과 工業生産力의 重要性을 指摘해서 말하기를 「現代戰은 엔진(發動機)의 戰爭이다. 美·英·蘇의 發動機 生産額은 '나치'獨逸의 3倍의 優位를 占하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는 必然的으로 敗亡할 것이다」라고 喝破한바 있다.

北傀의 戰爭經濟는 共產主義의 基本戰爭觀과 '맑스·레닌'主義의 戰爭基本思想을 그대로 受容한 위에 한발 더 나아가서 金日成「唯一思想」 즉 「主体思想」에 의한 體制確立에 의해서 本質的으로 人民과 政治와 經濟가 有機的으로 高密度로 結合하고, 統一된 運動法則에 의해서 推進되는 恒久的 戰爭經濟이며, 이는 戰爭時를 不問하는 戰時經濟體制이다.

이같은 「恒久的戰時經濟體制」는 軍事力造成과 社會主義經濟建設이 透合된 形態로, 다시 말하면 完全한 國家資本에 의한 軍産複合體系로서 모든 經濟體制가 作動되며 이를 위한 基本綱令이 다음과 같이 整備되어 왔다.

즉 北傀에서 一般的으로 推進해온 經濟政策의 三大基調가 바로

恒久的 戰爭經濟의 基本綱令을 은폐하고 있으며, 그것은 北傀의 政治經濟學的 實踐을 歸結 지우는 ①重工業優先政策과 ②'아우타로키'의 自力更生을 指向하는 소위 自主的 民族經濟 그리고 ③國防과 經濟建設의 同時 併進政策이다. 이들 철저하게 複合된 戰爭經濟體制는 다음과 같이 敘述된다.

첫째로 「重工業優先方式인바 社會主義의 經濟法則 그 自体가 밖스 「再生産表式」 즉,

$$C_1 + V_1 + M_1 = W_1 \quad \text{生産手段生産部門(1)}$$

$$C_2 + V_2 + M_2 = W_2 \quad \text{消費資料生産部門(2)}$$

(C는 不變資本, V는 可變資本, M는 剩餘價值, W는 商品임)

以上에서 消費資料生産部門 보다 生産手段生産部門에 力點을 두고 모든 計劃經濟가 不比例發展을 生産手段(重工業) 爲主로 해가는 原理에 따라 導出된 것을 말한다. 이같은 方式은 바로 스탈린式 一國社會主義가 모든 經濟를 生産 및 人民經濟фон드를 蓄積하는데 集結시키고, 그것도 $G - W - G'$ 의 前期的 資本運動이 아니라 $G - W \dots P \dots W' - G'$ (여기서 G는 貨幣, W는 商品, P는 生産過程)라는 工業資本運動에 맞추어 「國民經濟바란스表」나 「物財바란스表」를 計劃經濟에 의해서 軍事力造成經濟로 運行시킨 것과 같다.

重工業優先方式은 北傀가 1947 ~ 48년에 單年度 國民經濟計劃을 할때 이미 生産手段의 90%를 國公有化시키는 「事業부터 始作해서

1957年 5個年 人民經濟計劃때에 「社會主義的工業化的 基礎를 만
든다」고 하여 工業成長率 年平均 36.6% 達成으로서 急速히 定
着시킨바 있고 모든 經濟計劃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항상 政策의
骨幹을 이룬다.

重工業部門에서도 鉄鋼 및 機械工業에 主力하고 石炭化學 및 窒
素工業, 카바이트工業을 促進한 것은 이 分野에 있어서 軍需兵器產
業과 直結되는 때문이며, 특히 機械工業의 自給率 90%를 誇示하
는 것은 兵器自給化를 그대로 反映하는 現象이다.

經濟力建設을 위한 國家의 資本投下는 重工業에 最優先하고 그중
國家資源配分의 大部分은 軍裝備生産에 集中되어 軍兵器生産의 高度
化 發展段階와 더불어 無限定 계속되고 있다고 할것이다.

둘째로 北傀의 恒久的 戰爭經濟는 '나치'獨逸의 廣域圈經濟下에서
統制計劃이 主導한 民族의 生命圈經濟에서 活用된바와 똑같이 '아우
타로키', 즉 自給自足を 指向해 오므로서 全地域要塞化란 軍事戰略과
그대로 결들여서 始終一貫된 國防經濟體制를 定着해 오고 있다고
할것이다.

이른바 7個年 人民經濟計劃에서 根本적으로 蹉跌을 바로잡기에
腐心하던 1966년에 金日成은 勞動黨代表者大會에서 「社會主義建設
에서 가장 중요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거듭 呼訴하였다. 마치 '나치'
獨逸의 '팻시즘'에서 民族生存圈의 廣域經濟를 부르짖으면서 侵略을
위한 軍經濟의 組織化를 굳히고, 피(血)의 哲學을 내세워 "게로만"

優位民族思想을 내세운 것과 똑같이 民族經濟를 軍事組織化로 굳히면서 소위 「主体思想」을 내세워 生命圈의 自主路線을 強調하였다. 「스타린式 一國社會主義의 '아우타로키'라고 부르는 이같은 閉鎖的인 自給自足化의 論理는 恒久的戰爭經濟의 体制속에서 歸結되는 原理이다. 「思想에 있어서 主体, 政治에 있어서 自主, 經濟에 있어서 自立, 國防에 있어서 自衛」를 閉鎖主義 哲學으로 삼아 社會主義 兄弟國들로부터의 戰爭規制라는 孤立化에 크게 反撥하면서, 社會主義 國際分業은 大國從屬을, 社會主義 國際協力은 大國干涉을 結果하므로 北傀는 自給自足の 民族經濟體系를 指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즉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土台는 民族國家가 存在하는限 民族國家를 單位로 해서 建設되지 않으면 안되고, 「各國이 經濟建設과 國防建設 및 人民生活의 多樣化 속에서 더구나 끊임없이 增大하는 重工業製品과 輕工業製品 및 農業生産物에 대한 需要를 國內生産으로 円滑하도록 多面的 發達을 期하고, 最新의 技術로서 裝備된 自國의 民族幹部와 自國의 天然資源, 原料 및 資材에 의해서 作動되는 總合적으로 自立的인 民族經濟를 建設한다는 것」에 의해서 經濟建設, 國防建設 및 人民生活의 三結合을 試圖하고 있다. 따라서 民族經濟는 恒久的戰爭經濟이며 基本的生産物의 自給自足を 위해서 ①多面的 生産諸部門 ② 最新의 技術裝備 ③民族技術幹部의 大軍 ④原料資源基地의 確保에 의한 '아우타로키'化한 自立的 經濟體系로 構成된다. 北韓에서, 一國 社會主義式 戰爭經濟는 이른바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

濟라는 概念으로 深化되었다고 하겠다.

세계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路綫」을 들 수 있는데 1966年 10月 党代表者會議에서 交着狀態에 빠진 7個年計劃을 3年間 延長하는 決議와 더불어 以上の 國防 및 經濟建設의 同時建設을 党政策의 새로운 轉換路綫으로 採択하였다. 表面上 經濟와 國防을 同等한 部面으로 내세우고, 同時建設 또는 併進政策으로 取한 데에는 北傀의 恒久的戰爭經濟의 觀點에서 볼때 두가지 面에서 一大方向轉換을 意味한다. 하나는 北傀가 총래 적어도 1945年~ 1965年間 계속해서 軍事經濟만을 爲主로 戰爭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經濟發展을 試圖해 왔으나, 이제 부터는 一般 人民生活經濟를 意識하고 이에 관한 配慮없이 戰爭經濟를 지탕해 갈 수 없다는 点이고, 다른 하나는 重工業優先方式 및 '아우타로키'의 自力更生方式 속에 別途의 戰爭經濟部面이 次元을 높여 탄생하고, 高度化되기 위해서 分離되어야 한다는 事實認識에 접어들었다는 点이다.

이때부터 北傀의 經濟力量은 戰爭經濟와 一般人民生活經濟가 同時에 併進되어야 한다는 点과 經濟的軍事潛在力은 軍事力의 産業能力이 地上軍師團作成의 能力으로부터 戰術單位의 作成을 獨自的으로 遂行할 段階에 進入하였기 때문에 恒久的 戰爭經濟의 質的法則이 從來의 統一된 一國戰爭經濟體制로부터 分離되고, 다시 말해서 產軍複合體制의 탄생에 의해서 더욱 高密度化된 戰爭經濟를 遂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뒤에서 詳細한 分析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이들 分離된 戰爭經濟의 部面만을 따로 떼

어내서 그것만을 國防費支出로 看倣하고, 종래 一般經濟部門까지 包含된 國防費支出을 分離시킬때 國防費部門은 G N P의 30%水準 또는 國家豫算의 33%線에서 一挙에 16%水準으로 低減시킬 수 있다는 事實이 이를 立証해 준다고 할것이다.

結局 北傀의 恒久的 戰爭經濟體制는 以上에서 開陣해 온바와 같은 重工業優先에 의한 「아우타로키」의 民族經濟위에 國防 및 經濟의 同時建設路線으로 集約되며, 이같은 體制基調가 本軌道에 進入한 것은 1966年 10月 黨大會에서 高度화된 黨路線으로 確定되었다고 할것이다. 이때 「經濟發展을 어느程度 調整해서 國防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7個年計劃을 3年間 延長한다」라고 하면서 「軍需工場을 훌륭하게 建設하고 一層發展시켜 人民軍隊의 技術裝備를 強化하고, 全人民의 武裝에 必要한 武器와 各種의 軍事技術機械를 원활히 生産하고, 全國을 要塞化하기 위한 大的인 防衛工事に 많은 努力과 資源을 注入해야 한다」라고 한것이 北傀의 戰爭經濟體制를 端的으로 表現해 준다고 할것이다. 이같은 基調는 70年 1月에 열린 第5回 黨大會에서도 거듭 다짐함과 동시에 原料自給化, 物資節約 및 技術革命을 附加하면서 「國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增産과 節約鬪爭을 通해서 必要한 物資의 豫備를 充分히 하고, 戰時에도 生産을 계속할 수 있도록 經濟를 改竊함과 同時에 軍需工業을 한층 發展시킨다」라고 하여 더욱 굳히고 있다.

三. 北韓의 經濟的戰爭潛在力分析

北韓의 國力을 把握해보기 위해서는 國民總生産 즉 GNP概念을 援用할 수 밖에 없겠으나, 實際로 이를 測定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우선 經濟計算이 相異하고 「서비스」産業区分이 다르므로 難點을 크게 지니고 있다.

共產主義의 經濟計算 (Economic Calculation)에 커다란 疑問을 提起하고 成立如否를 否定的으로 規定한 바도 있었지만 今 「物量生産額集計方式」, 즉 MPS (material products system) 방식에 의한 國民所得을 容認하고 있으므로 詳細한 分析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北韓의 國力으로 소위 MPS推計値를 우리의 NNP와 類似하므로 GNP 概念으로 일단 看做하며, 이들의 國防經濟力量과 經濟的戰爭潛在力の 源泉으로써 經濟力指數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北韓의 國力을 總體的으로 把握해 볼때 社会總生産物 (Global Social Product) 概念을 이들의 再生産過程에서 새로이 創造된 純生産部門, 즉 社会總生産 중에서 資本支出費用을 包含한 모든 物的支出을 差減한 殘餘分으로서 國富概念으로 볼 수 있고, 使用価値面에서 消費財의 總量과 生産手段의 合計 또는 利用面에서 蓄積과 消費의 源泉으로 区分된다.

이때 國防經濟力量은 ①蓄積 фонд에 의한 國富와 ②蓄積을 增大시키기 위한 投資 (특히 國防生産投資 및 重工業優先投資)로 区分해

볼 수 있고, 國防經濟力の 造出限界는 ①直接的으로 消費削減過程을 통해서 調達되는 國民生活最低水準의 限界線과 ②間接的으로 國民的 資本更新을 위한 租投資를 軍需生産에 轉用해서 國防經濟力을 最大로 할 수 있는 限界線으로 区分할 수 있다.

여기서 國富를 土台로한 國防經濟力을 造出할 수 있는 첫째 原理로 經濟力指數 (E.P.I 指數 - Economic Power Index, Lorimer 博士에 의해서 考案되었으므로 '로리마' 指數라함)를 算出해 볼 수 있다.

經濟力 (E.P.I) 指數 = [個人當所得 - 個人當平均最少生存費] × 總人口數

以上の 公式에 따라 北韓의 經濟力指數를 통한 戰時에 動員될 수 있는 國防資源의 配分으로서 經濟的 戰爭潛在力量을 算出해 보면 다음과 같다.

經濟力指數를 推計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問題의 關鍵은 北韓國民의 最低平均生存費水準이 어느만큼인가를 어림잡는 어려움이다. 대개 勤勞者家口の engel係數를 기초로하는 個人消費水準이지만 國民所得 그 自体의 比較差나 換算基準의 曖昧함도 計測上的 困難일 뿐더러 個人當 最低消費水準을 如何이 評価할 것인가는 더욱 總잡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를 그나름대로 根拠있게 捕捉하기 위해서 北韓住民의 個人所得에서 再生産을 위해 必要한 總投資의 負擔과 軍事費의 支出額을 勘案한후 실질적으로 住民의 厚生을 위해서 消費할 수 있는 1人

当 平均 最低消費水準을 抽出해 본 것이다. (註: 이 資料는 1975 年 8 月 韓國開發研究院에서 刊行된 「南北韓經濟現況比較」 各種 經濟指標을 통해 보는 南北韓經濟現況에 依拠함, 7 國民生活水準의 比較)

南北韓 1 人当 消費水準 (1974 年)

	北 韓	韓 國
1 人当 G N P (弗)	313	513
總 投 資 率 (%)	(35)	(30.0)
1 人当 投資額 (弗)	109.5	154.1
國防費 / G N P (%)	(13.9)	(4.2)
1 人当 國防費支出額(弗)	43.5	21.7
1 人当 消費水 準	160.0	337.2

資料: KDI 南北韓經濟現況比較

北韓의 1974 年度 1 人当 G N P 313 弗, 그리고 1 人当 最低平均 生存費를 160 弗 (51%) 로 잡고, 人口 1 千5 百 90 萬名으로 잡아 볼때 北韓의 經濟力指數 = [313 弗 - 160 弗] × 1.590 萬名 = 40.2 億弗 로, EPI 指數는 約 40.2 億弗이 算出된다. 이 額數는 北韓에서 戰爭을 遂行하기 위해서 國防資源을 動員해 使用할 수 있는 經濟的 戰爭 潛在力量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똑같은 計算을 韓國에 適用해서 北傀와의 對決에서 1974 年度를 基準해 본 經濟力指數를 比較해 본다면 一般經濟力量의 優位比較에서 生活水準은 韓國이 훨씬 높아 國民의 厚生增進에 앞서고 있는 反面 經濟的 戰爭潛在力量은 絶對額으로는 높지만 相對的인 面에서는 低能率을 免치 못하고 있다.

韓國의 1974 年度 1人當 GNP 513 弗 그리고 1人當 最低平均生存費를 337 弗 (65.8%) 로 잡고, 人口 3千3百46萬名으로 잡아 볼때 韓國의 經濟力指數 = [513 弗 - 337 弗] × 3千3百46萬名 = 59.7 億弗로 EPI 指數는 約 59.7 億弗이 算出된다.

이 經濟力指數는 個人當所得 (Income per Capita)에서 最低生存에 必要한 財貨量을 差減하고, 남은 殘與分의 財貨+用役을 有事時, 즉 戰爭目的을 위해서 國防經濟力으로 動員시킬 수 있는 力量 (Capesibility)을 말하는 바 全國民의 生存維持에 要하는 費用을 國民所得에서 控除하므로써 남은 殘額을 서로 比較해서 人口, 經濟力, 國防力 相互間의 關聯을 明確히 밝혀본 一國의 經濟的戰爭潛在力量 또는 軍事力을 評価해 볼 수 있다는 點에 큰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參考로 二次大戰時에 있어서 主要參戰國들의 經濟力指數를 各國에 適用해서 抽出해 보면 粗雜한 算出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差異로서 戰爭遂行能力上的 脆弱性도 쉽게 判別해 볼 수 있다.

各國經濟力指數表(2次大戰時)

(單位：億弗)

國名	經濟力指數	國名	經濟力指數
美國	700	日本	70
蘇聯	280	캐나다	50
英國	200	伊太利	30
獨逸	170	폴란드	20
仏蘭西	90	벨기에	20

資料：J.B.Cohen : Japanese Economy in War and Reconstruction, 1948 New York. 日訳版, 上巻 pp 2~3.

2次大戰時에 伊太利가 히틀러의 無限한 軍事支援에도 불구하고 樞抽國 獨逸보다 빨리 敗退한 것은 經濟力指數가 不過 30으로서 獨逸의 170이란 經濟的戰爭潛在力의 數値가 이를 立証해 주며 太平洋戰爭에서도 日本은 自國의 産業經濟力이나 國防力에 있어서 보 다도 10倍나 더 큰 나라(美)를 攻擊하러 할때 그러한 過誤를 저질러 重大한 經濟的 誤算을 犯하였다고 코헨教授는 指摘하고 있다.

南北韓間의 經濟的 戰爭潛在能力은 經濟力指數가 提示하듯이 韓國 60對 北傀 40으로 絶對的 差異가 韓國의 優勢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相對的인 面에서 韓國의 脆弱點도 不慮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上記 二次大戰時 各國經濟力指數表에서 보듯이 美·蘇의 比較에서 蘇聯이 280의 指數를 보여 美國의 700에 壓倒되는 格差를 보여 주지만 戰後宇宙競爭에서 長期間 美國을 능가한 것은 國民大衆의 消費生活을 극도로 統制하고, 宇宙科學—나아가서는 廣義의 國防科學의 研究發展에 全國力을 傾注한 結果이며, 國防潛在力이나 動員構造만으로는 表現할 수 없는 相對的 經濟潛在力의 底力을 發揮한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體制上의 役割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北傀는 蘇聯보다도 더한 強權體制上의 底力을 發揮해서 國防資源의 集結을 期할 수 있고, 극도의 國民消費生活의 抑制에 의해서 最底生存費水準에서 軍事力造成이나 戰爭潛在力의 蓄積과 動員을 遂行할 수 있으므로 韓國의 最底生活水準에 比하면 經濟力指數 以上の 力量發揮을 할 수 있는 反面 韓國의 경우 自由經濟體制下에서 經濟的 戰爭潛在力은 經濟力指數以下에 머물러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에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四. 軍事力과 經濟的 軍事潛在力

'프린스턴'大學의 '클라우스·노어'(Klaus Knorr)教授는 그의 有名한 最近著書 「軍事力과 軍事潛在力」(Military Power and Potential 1970)에서 「戰爭 潛在力이란 限定的概念이고 軍事潛在力은 廣義의 概念이며 이 概念은 軍事技術의 發達로 인하여 그 重要性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라고 前提하고 있다.. 軍事力을 戰爭에 使用할 때에는 통상 2가지 目的이 있는바 「첫째는 어떤 目標을 힘에 의해서 奪取하거나 또는 防禦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相對方에게 더 큰 破壞를 입히겠다는 威脅을 加함으로써 特定條件下에서 敵對關係를 終息시키거나 또는 相對方에게 無條件降伏을 受諾하겠음 影響을 미치기 위한것」이라고 定義한다.

結局 軍事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強壓을 行使하기 위한 '力量」이라고 規定해도 막연하므로 「힘이란 實際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能力」이라고 풀이해 볼 때, 힘(力)이란 實體는 實際的인 影響力을 미치는 顯在的 힘(actualized power)인 동시에 다른 한편 能力의 擴大解釈에 의해서 影響을 미치기 위한 強壓하는 힘 以前의 能力(ability)으로서 卽 行態變化의 潛在的인 要因 「推定된 힘(putative power)」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國家間的 特殊한 關係속에서 「推定된 힘은 手段이고 顯在的 힘은 結果」라고 指摘하여 이를 다같이 軍事潛在力(Military

Potential) 概念으로 結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軍事潛在力은 經濟·科學技術을 포함하여 非經濟 및 非技術的인 수많은 餘他 條件과 관련되며 대체로 測定이 困難하거나 測定이 不可能하다」는 點을 들면서 「平時 또는 戰時의 軍隊와 軍需物資를 動員하고 이를 展開해야 할 國家의 能力은 各種 物資와 「서비스」를 産出할 力量 即 勞動力과 原料와 金融資源」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歸結해 볼 때 經濟力量 (Economic Capability)은 바로 軍事力의 起動力이 되며 人口의 規模 및 構成, 國家의 領土 水資源 및 鉦物資源, 勞動力의 經濟的 生産性, 그리고 經濟的·科學技術的 發展水準 등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經濟的軍事潛在力 (Economic Military Potential)은 經濟的戰爭潛在力 (Economic war Potential)과 大同小異한 概念이기는 하되 前者가 廣義의 概念인데 비해 後者は 狹少한 概念이라고 区分할 수 있으며 앞서 開陳한 經濟力量이 現實에 나타난 能力 (ability) 即 一般經濟力인데 比해서 經濟潛在力은 軍事力에 直結되는 經濟力으로서의 經濟力量을 包容하고 持支해주는 潛在能力 (potential)이라고 究明하게 된다.

軍事潛在力으로서 國家의 力量을 「크라우스·노어」教授는 첫째 經濟的力과 經濟潛在力, 둘째 行政的力과 行政潛在力, 셋째 政治的力과 政治潛在力으로 細分하고 이를 모아서 軍事力量과 軍事潛在力으로 結集하고 있는데 그 核心 起動力은 經濟的軍事潛在力이며

行政力量은 軍事力管理의 技法과 軍事的 意思決定 (decision making) 을, 그리고 政治力量은 國家의 利害關係와 意志를 各各 結集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같은 觀點에서 볼 때 經濟的軍事潛在力은 「可処分剩餘資源」으로서 經濟力量 중에서 軍事部門에 轉用할 수 있는 源泉을 들고 있다. ①軍事需要가 增加되기 前의 國民總生産 ②豫備生産能力과 自然增加된 勞動力 ③國民消費의 轉用시킨部分 ④民間國內總投資의 轉用시킨部分 ⑤非軍事政府購買部分의 轉用部分 ⑥純海外投資部分 등이다.

그리고 經濟的軍事潛在力에 包容되는 經濟力量으로서 ①國力概念에 속하는 國民總生産 ②1人當國民總生産 ③國家의 經濟的成長 ④軍事資源의 構成—軍事費의 類型, 軍裝備, 人力, 天然資源 ⑤産業潛在力 ⑥科學技術潛在力—軍事研究開發 ⑦國際貿易 및 金融—武器輸出入, 對外貿易과 經濟潛在力, 國際金融力量 ⑧經濟體制와 經濟的軍事潛在力 등을 들고 있다.

限定된 資源能力 속에서 軍事力의 造成 및 其의 運用은 戰平時를 막론하고 經濟的軍事潛在力의 比較研究에 의해서 糾明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諸事項들이 考慮되어야 한다는 점을 '크라우스·노어'教授는 指摘하고 있다. 물론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의 考慮事項들은 무엇보다도 前提條件으로서 豫想되는 戰爭의 樣態, 이에 관한 軍事政策 및 軍事戰略 그리고 軍事力의 規模와 不可避하게 相關性을 設定해야 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첫째, 國家의 經濟的 力量은 여러가지 國防上 問題와 軍事所要上의 人力 및 經濟的 資源需要에 比例한다. 軍事所要가 長期持久戰을 想定한 경우 熾烈한 軍備競爭에 대한 經濟的 軍事潛在力도 커야 되겠지만 國境守備나 小規模 軍事的 威脅下에서는 그 重要性도 적을 수 밖에 없다.

둘째, 國家의 經濟的 力量이 크면 클수록 一定한 規模의 軍事的 所要에 充當되는 資源規模는 적어질 것이다. 美國은 1967年 越南戰에서 3%를 약간 超過하는 戰費를 치른 경우 國家의 巨大한 經濟的 軍事潛在力에 比하여 軍事部門이 끼치는 影響은 微々하다.

셋째, 敵對國間에 人力과 經濟的 力量이 적은 差異밖에 없을 때에는 經濟的 軍事潛在力을 比較研究하기 보다는 오히려 軍事的 優勢를 獲得하려는 意志나 動員管理技法上의 差異가 軍事的 成敗를 左右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經濟的 軍事潛在力의 究明은 根本적으로 人力, 經濟的 力量 및 關聯된 諸 特性 中에서 選擇順位에 따르고, 한편 潛在力을 基礎로 하여 軍事部門에 어느만큼의 資源配分을 意圖하는가 하는 國家의 意志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말할 수 있다. 國家의 意志는 當面한 軍事目的과 더불어 經濟體制에 의해서도 左右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經濟的 軍事潛在力에 관해서는 일찍이 '루덴돌프'(Erich Ludendorff)의 「總力戰」概念이提起된 때부터 「國防國家總體의 力量」이란 ① 頭在國防力 즉 戰爭力을 말하며 「戰時經濟에 있어서 事實上으로

發動된 「國防經濟力」과 ② 潛在國防力 즉 國防經濟潛在力으로서 將來 할 戰爭에 配置할 수 있는 兵力 이외에 一國의 全經濟的力量을 總括해서 말하는 것으로 國防力이란 民族과 國土防衛를 위해서 戰時經濟에 있어서 事實上 達成된 國民과 經濟에 의 配置」라고 規定되어 왔다.

總力戰——(精神力+軍事力+經濟力)이란 「루덴돌프」의 定義가 經濟力量 및 經濟潛在力の 概念을 提起한 이래 今日 核時代의 恐怖의 均衡 (balance of terror) 속에서 總力戰+核戰爭의 危脅은 한층 더 平時의 經濟的軍事潛在力을 強調하기에 이르렀고 顯在的 經濟力量을 뒷받침하는 內部的 全般的인 基礎로서 그 意味는 「크라우스·노어」의 問題提起에 의해서 더욱 明確해졌다.

다만, 「크라우스·노어」의 軍事潛在力の 概念은 資本主義經濟體制의 側面에서 總力戰과 核戰爭을 想定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대로의 最近現象에 관한 論理가 있는 反面 美國의 「柔軟反應戰略」에 따른 戰爭抑止의 側面과 物量戰을 遂行할 수 있는 經濟大國의 立場에서 制限戰爭을 圍繞한 軍事力과 經濟潛在力이란 面에서 一般性이나 普遍妥當性의 欠如가 눈에 뜨인다. 經濟的軍事潛在力の 問題는 經濟的戰爭潛在力の 問題 보다도 더 넓고 깊은 面에서 國民經濟力量

의 基本바탕이 關鍵이 될것이다, 特히 韓國과 같이 南北韓對峙의
경우에는 北韓이 一國社會主義式 產軍複合의 經濟潛在力과 自給自足
의 底力있는 '아우타로키'를 더밀고, 나아가는 狀況에서 韓國의 이제
成長하는 經濟力이 첫째 經濟的軍事潛在力의 概念으로 比較研究에
制限이 따르며, 둘째 '크라우스·노어'의 法則에 따르면 「對邦國間經
濟力量의 差異가 僅少한 경우 行政力量이나 動員技法 및 意志」를
要因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莫然하다 하겠고, 세계 經濟的軍
事潛在力의 概念 자체가 計量化나 數字上的 計測이 不可能하므로
本質的인 比較上的 脆弱點이 있는것이 事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經濟的軍事潛在力은 經濟力量과 關聯시켜 軍事力造成과
適用에 어느만큼 水準을 지녔는가를 綿密히 把握해 보기 위해서
이를 '크라우스·노어'의 理論에 맞추어 分析을 試圖해 보는것도 意
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五. 北韓의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の 分析

1. GNP와 1人當GNP의 軍事潛在力.

國民總生産은 各國의 全般的인 經濟的 能力을 測定할수 있는 理想的인 尺度는 결코 될수가 없고 國民總生産에 따른 經濟力の 相互比較는 誤謬를 犯하거나 正確性을 缺如하기도 쉽다.

특히 北韓과 같은 共產主義經濟를 GNP概念으로 把握하고 比較한다는 경우 ① 同一한 定義와 測定節次를 使用하지 않는다. ② 國民總生産의 數値에 網羅된 生産範圍가 다르다. ③ 이差異는 經濟體制가 相異하거나 經濟發展段階가 다른 國家間에 顯著하다. ④ 共產主義國家에서는 3次生産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除外되므로 評價를 달리한다. ⑤ 最惡의 障礙는 國民總生産이 相異한 通貨로 表示되고 一國의 通貨의 購買力 平価가 非現實的으로 過大 또는 過小平價된다는 點이다.

社會主義國家에서 使用되고 있는 「社會總生産」(Global Social Product, G.S.P)概念은 國民經濟의 모든 生産單位의 總生産量을 合計한 額數이며 그計定上에 있어서 모든 生産單位는 外部로 부터 投入된 中間財의 價値를 控除하지 않으므로 中間財의 重複計算이 推計方法에 따라 크게 差異가 난다.

또한 北韓과 같이 物量生産額集計方式(Material Products System, M.P.S)도 역시 「社會總生産」의 概念이며 새로이 創造된 純生産部門 즉 社會總生産 中에서 資本支出費用을 包含하고 모든

物的支出을 差減한 殘餘額이라 하여 우리의 「純國民所得」(National Net Product N,N,P)의 概念과 類似하다. 物的生産에 限定되고 消費財에 賦課되는 去米稅를 包含하며 公共行政이나 國防, 教育, 個人서비스는 非生産的 즉 物的支出로 除外된다.

이를 價值面에서 본다면 「生産에 投入된 勞動에 의하여 創出된 可變資本과 剩餘價值의 合計」로 되어 工業+農業+建設(使用價值의 生産)+運輸+通信+一部商業(價值形成過程에 參與)로 具體化 된다. 또한 使用價值 面에서는 「消費財의 總量+生産手段生産」의 合計로써 物的生産을 이루고 利用面에서는 즉 支出面에서 蓄積fond+消費의 源泉」으로 推計된다.

어떻든 以上の 「物量生産額集計方式」에 의한 北韓의 GNP는 일반적으로 資本主義國家에서 「一國의 國民經濟가 特定期間에 財貨와 用役의 生産에서 發生된 附加價值總量(Value added)을 貨幣單位로 推計한 額數」라는 흐름(flow)의 集計라는 面에서 根本概念上的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算出額의 計定上에 있어서 國民生産力量의 概略的인 指標라는 觀點에서 볼때 또는 國家資源을 比較하는 基礎라는 觀點에서 볼때 그리고 限定된 資源의 可用度는 軍事力을 發展, 維持 및 運用하기 위한 政府能力을 制限시키므로 결국 國民總生産은 國家의 經濟力量을 把握하고 指標가 되고 最善의 比較指針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北韓의 GNP는 新6個年人民經濟計劃이 막바지에 오른 1974년에 美弗貨換算으로 48億2千萬弗이라 推定되고 6個年計劃을 早期達成

	北 韓	韓 国
人 口 (千人)	15,900	33,459
人 口 增 加 率 (%)	2.4	1.67
国 土 面 積 (km ²)	122,370.38	98,477.48
G N P (億 弗)	{ 29.5 (69 年) 48.2 (74 年) 53.8 (75 年)	{ 60.7 (69 年) 171.6 (74 年) 187.0 (75 年)
G N P 成 長 率 (71 ~ 75 年 平 均)	9.7	10.6
1 人 当 G N P (弗)	{ 210 (69 年) 313 (74 年) 342 (75 年)	{ 223 (69 年) 513 (74 年) 531 (75 年)
軍 事 費 負 担 率 (%) (軍 事 費 / G N P)	13.9	4.2
投 資 額	16.9	51.5

資料 : KDI,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75

註 : 74 年 北韓의 1 人 当 GNP 313 弗은 (世界銀行 72 年 發表)

했다고 치는 75 年에 53 億 8 千萬 弗로 推定된다. 같은 期間에 韓國과 比較해 본다면 韓國은 74 年에 171 億 弗 그리고 75 年에 187 億 弗로 外形 GNP 差異로는 圧倒적으로 높다. 實質적인 考慮를 해 본다고 하더라도 비록 北韓의 國民所得이 物質生産만을 集計하고 物物交換去來가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例를 들어 主副食은 糧券制라든지 被服에서의 配給制 및 住宅의 制限등 衣食住의 基本生活에 있어서의 統制) 또한 自給自足體制에 따른 所得發生의 制限

등을 勘案한다고 해도 역시 GNP의 規模에 있어서 質量 共히 韓國보다 적은것은 事實이라 하겠다. 이같은 趨勢는 특히 1969年 以來 北韓의 低調를 充分히 찾아 볼수 있다. 이같은 閉鎖共產主義 經濟나 後進低開發經濟에서 物物交換經濟라든가 自給自足經濟는 貨幣의 機能을 縮小시키므로서 全体所得計定上에 誤差 및 漏落要因은 尙수가 있고"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 教授는 實除로 "버어마"의 國民所得이 經濟循環의 過程에서 격어도 300% 程度가 漏落되었다고 指摘한바도 있었다. 이같은 狀況을 勘案한다해도 北韓 國民所得을 그 水準이나 規模에 있어서 現今의 韓國보다 더크게 過大評価 될수가 없다는 事實認識이 나오게 마련이며 100億弗도 못되는 水準에서 軍事力造出의 限界나 戰爭潛在力の 出力도 또한 独自の 持持戰이나 自力國防의 力量도 明白히 限界가 있다는 點을 우선 留意할수 있다.

또 한가지 北韓 國民所得의 規模評価에 있어서 考慮해 보아야 할點은 美弗貨換算에 따른 通貨換算 機能上의 買力等價値(Purchasing power equivalents)의 評価問題가 있는데 1970年度前後의 北韓貨 2원 35전 = 1美弗 [北韓貨 1원 = 140圓 (日本)] 이었고 美弗貨의 平價切下 및 日貨의 平價切上이 有은後 1974年度以後 換率은 北韓貨 2원 = 1美弗 [北韓貨 1원 = 150圓 (日本), 美 1弗 = 300圓] 그리고 1975年度에는 1.8원 = 1美弗 [北韓貨 1원 = 150圓, 1美弗 = 270圓] 으로 北韓貨의 購買力 즉 對外價値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日本 読売年鑑 1975 p122 1원 = 約 150圓, 그리

고 1 弗 = 300 圓 (74.7 月 現在) 이므로 이를 換算하면 北韓貨 1 원 = 0.50 弗, 2 원 = 1 弗] 1969 年度에 北韓의 國民總生産은 29.5 億弗 이었고 韓國은 60.7 億弗 이었으니까 其間의 成長率을 勘案해 볼 때 現今의 北韓의 GNP가 결코 過小 評價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美弗貨의 平價切下 및 變動換率制 以後 繼續적인 弱勢通貨의 基準에서 본다면 北韓 GNP의 水準을 보다 높이 評價해 줄수 있으나 그역시 韓國과 比較할때 優勢하지 못할 뿐더러 經濟的軍事 潜在力을 独自の 自力國防으로 充分히 이끌어갈 規模는 아니라고 할것이다.

北韓의 國民總生産額 換算

		1 美弗 = 2 원 35 錢 (1970 年 基準) (A)	1 美弗 = 1 원 80 錢 (1974 年 基準) (B)
GNP	1974 年	48.2 (億弗)	62.9 (億弗)
	1975 年	53.8 (億弗)	70.2 (億弗)
1 人 當 GNP	1974 年	313 (弗)	408.6 (弗)
	1975 年	342 (弗)	446.5 (弗)

資料 : (A) 는 KDI 刊, 「南北韓經濟現況比較」 (74 年 值)

國土統一院, 「北傀 6 個年計劃綜合評價」 (75 年 值)

(B) 는 日本版 「読売 및 世界年鑑」 収録 換率適用計算

北傀의 GNP를 74年以後 새로운 換率 1美弗=1.8北韓貨원式으로 換算해 본다면 1974年에 62億9千萬弗로 韓国の 171億6千萬弗과 比較差가 적어지게 되고, 1975年에 70億2千萬弗로 韓国の 187億弗과 比較되는바 그自体는 높이 平価되면서도 韓國에 規模로서 미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1人當 GNP 評價를 1美弗=1.8北韓貨원으로 換算해 보면 오히려 北韓의 總人口數가 韓国の 半以下이기 때문에 額數는 韓國을 웃돌아 1974年에 408弗로 韓国の 513弗과 近接하고 1975年에 446弗로 韓国の 531弗과 近接하는 額數가 나오며 이로써 본다면 1人當 GNP에 의해서 나오는 經濟的 軍事潛在力은 韓國을 威脅한다고 假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實際로 日本版「世界年鑑」(共同通信社 1977.p 189)北朝鮮篇에는 1人當 GNP가 74年 決算報告로 1千弗 以上이라고 記載하고 있다. 따라서, 購買力等價値에 의한 換率의 平価는 重大한 影響을 左右한다.

北韓의 國民總生産에 관한 經濟的 軍事潛在力으로서 看過할 수 없는 點은 世界的인 比較속에서 볼때 비록 下位圈에 屬하는 GNP이지만 質的인 構成에 있어서 經濟的 軍事組織化를 期하고 있어 탄탄한 構造를 지니고 있고 더구나 全國力과 可動國力을 軍事力造成에 손쉽게 投入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點이다.

특히 北韓의 軍事費配分이 그동안 最絶頂에 達했던 1966~72年期間에 비추어 보면 軍事費의 公式的인 支出比重이 GNP의 25.6% 또는 豫算支出의 31%를 占有하여 世界有數의 어느 나

라도 戰時를 除外한 準戰時 또는 平時에 이같은 GNP 26%를 動員 시킨바가 없는 事實을 想起해 볼때 어떻게 北傀의 軍事經濟의 力量과 軍事潛在力의 動員은 엄청나다고 할것이다.

2次大戰時 美國의 戰費는 3千8百億弗로서 GNP의 42.3%를 占有한바 있고 當時 日本의 戰爭支出은 GNP의 51%로서 餓死狀 態下에 敗戰했으며 平時體制下에 美國은 韓國戰爭時 約 200億弗의 戰費를 支出했지만 GNP의 5% 그리고 越南戰에서 2,000億弗의 戰爭支出을 하였지만 GNP의 7%에 不過했었다. 물론 GNP規模의 크기와 相對的인 戰爭支出이라는 函數關係가 있기는 하나 平時體制에서 北韓과 같이 GNP의 26%投入은 그動員能力을 무섭게 보아야 할것이다.

北韓의 國民經濟와 軍事費

單位：萬원
()弗

	國民總生產 (A)	予算支出 (B)	軍事費 (C)	B/A (%)	C/A (%)	C/B (%)
1961	352,726	233,800	6,079	66.3	1.7	2.6
1965	509,726 (21억7千萬弗)	347,613 (14억8千萬弗)	27,807 (1억2千萬弗)	68.2	5.5	8.0
1970	750,377 (31억9千萬弗)	618,662 (26억3千萬弗)	191,735 (8억2千萬弗)	82.4	25.6	31.0
1975	1,264,300 (53억8千萬弗)	1,156,200 (49억2千萬弗)	206,800 (8억8百萬弗)	91.4	16.4	17.8

資料：61, 65 年은 北韓全書, 75 年은 朝鮮日報 1976.4.29

()는 美弗貨

1965年度 主要國 GNP와 軍事費 順位

(現行「달러」의 購買力 等価 適用)

國 家	軍 事 費		國 民 總 生 産		1人当 國 民 總 生 産	
	順 位	計 (百萬「\$」)	順 位	計 (拾億「\$」)	順 位	計 (「\$」)
美 國	1	51,840	1	683.9	1	3,510
蘇 聯	2	40,000 (a)	2	313.0 (a)	12	1,300
프 랑 스	3	6,100	6	105.8	5	1,910
中 共 國	4	6,000	7	76.0	23	100
英 國	5	5,621	5	112.0	7	1,820
西 獨 家	6	4,991	4	124.7	6	1,900
이탈리아	7	2,509	8	69.8	13	1,100
캐나다	8	1,724	9	53.7	3	2,450
인도	9	1,710	10	40.5	23	100
폴란드	10	1,700 (e)	11	30.8	14	980
日本	11	1,622	3	175.0	15	860
체코슬로바키아	12	1,300 (a)	18	22.1	10	1,560
스웨덴	13	1,230	14	28.1	2	2,500
오스트레일리아	14	1,080	15	27.9	4	1,980
인도네시아	15	1,000 (e)	29	10.4	23	100
東 獨 家	16	1,000 (e)	16	26.6	9	1,570
네덜란드	17	980	17	23.0	11	1,540
브라질	18	961	13	28.4	20	270
벨기에	19	816	19	20.9	8	1,760
스페인	20	785	12	29.6	17	690
유고슬라비아	21	624	25	14.4	19	450
동일아랍	22	532	36	6.4	21	160
남아프리카	23	510	22	16.9	18	530
루마니아	24	500 (e)	24	14.8	16	780
터키	25	500	31	9.6	21	260
파키스탄	26	494	32	9.3	23	100

(a) 國民總生産에 對한 軍事費의 比率代表値는 蘇聯, 國民總生産을 「달러」等 價로 表示하는데 使用되는 換率이 軍事費를 表示하는데 使用되는 換率과 相異하므로 蘇聯의 「달러」評價에 基準할 수는 없다.

(e) 推定値

資料: "크라우스·노어", 軍事力과 軍事潛在力, 國防大學院刊 p79

따라서 北韓의 경우 1965년에는 軍事費를 1億2千萬弗 정도로 GNP의 5.5% 水準에서 支出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1966년부터 内外情勢의 變化에 따라 急激히 GNP의 25% 水準에 올리고 1970년에는 軍事支出이 GNP의 25.6%인, 이미 8億2千萬弗을 支出할 수가 있었다. 1975년에는 비록 軍事費가 急減해서 GNP의 16.4%인 8億8百萬弗이라고 하나 換算率을 現實적으로 適用해 본다면 20億弗은 能히 되지 않은가 싶고, 실제로 그정도의 支出規模가 되어야 52萬常備軍을 運用, 維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北韓의 1人當 GNP와 經濟的 軍事潛在力으로서의 役割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結局 國民總生産의 크기는 勞動力의 크기와 生産性에 依存되므로 高度의 生産能力은 1人當 GNP의 크기에 反映된다고 할 것이며, 軍事力의 差異에는 直接的인 影響이 없지만 軍需物資의 生産 및 이의 使用能力에 關係서 指標로써 活用된다.

一般的으로 1人當 GNP가 높은 상당한 水準에 있으므로서 이를 1人當生産이 높은 高所得經濟는 軍事潛在力의 意味에서는 다음과 같은 傾向性を 지녔다고 한다.

- ①資本이 豊富하고
- ②技術적으로 發展하며
- ③勞動生産性이 높아지고
- ④教育和 研究가 활발해지며
- ⑤公私企業의 經營者, 技術者, 科學者 및 勞働者와 消費者의 態度는 經濟成長의 加速化를 追求하게 되고
- ⑥이를 特殊條件은 技術적으로 發達된 武器의 生産, 運用 및 使用을 위한 값진 資源이 될 수 있으며
- ⑦大國으로서의 広範하고 豊

富한 資源基盤까지 形成하게 되면 軍事大國으로 發展할 수 있고
⑧低所得國家가 自國資源에서 軍事裝備를 供給할 수 있는것 보다
高所得國家가 多量の 良質의 武器를 供給할 수 있다고 한다.
北傀의 경우 이같은 高所得經濟는 결코 아니지만 異質體制속에서
또다른 評價를 할 수는 있다.

北傀의 경우 1人當 GNP는 1974年에 313 弗 그리고 1975年
에는 342 弗로 알려져 韓國의 74年 513 弗 및 75年 531 弗에
比해 현저하게 낮은 水準이고 이것이 人口를 勘案한 GNP能力이기
때문에 곧바로 生産性 및 資源活用に 있어서 人的 또는 物的으로
다같이 韓國보다 能率이 떨어져서 軍事潛在力 面에서나 經濟力量
面에서나 뒤지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國民總
生産의 說明속에서도 指摘한바와 같이 最近年間 美弗貨의 購買力
評價切下속에서 換算率을 從來와 같이 1弗當 2圓 35 錢을 잡았을
때의 結果이고, 만일 換算率을 달리 잡는다면 比較結果도 크게 달
라질 수 있다는 事實을 留意할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의 1人當 GNP와 관련해서 軍事潛在力에 관하여 經
濟外的 言及을 한다면 國民生産力이나 資源集中은 軍事部門에 最優
先順位로 하면서 國民生活水準을 最低生活에 묶어 두는 경우 可処
分剩餘資源의 增大에 따른 軍事力の 크기를 더할 수 있으면서 이
에 附加해서 國民의 最小生存에서 오는 尙武精神의 高潮 및 戰線
軍人들의 士氣양양은 오히려 增大된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볼때 北傀軍事潛在力の 1人當 GNP로부터 나올 수

수 있는 經濟的 또는 非經濟的인 "프랑스"要因은 國民總生産의 範圍
 內에서 制約되면서도 상당한 높은 能率을 發揮할 수 있을 것으로
 判別되며, 經濟力量의 低評價에도 불구하고 軍事力量의 相對的인 高
 能力을 度外視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經濟成長과 軍事潛在力

一般的으로 國民總生産의 增加를 나타내는 經濟成長率は ①資本
 財와 人的資源投資에서 오는 雇傭增大 ②勞動의 生産向上 ③技術革
 新에 따른 經濟活動의 擴大에 基因하며 經濟成長의 速度는 相異한
 經濟發展速度와 生産力量의 時間經過에 따른 差異로서 나타나므로
 重要한 動態經濟力量의 指標가 된다.

北韓의 年平均 經濟成長率

(單位: %)

	5 個年計劃実績	7 個年計劃実績	6 個年計劃実績
經濟成長	21.0	8.9 (15.2)	10.6 (10.3)
工業成長	36.6	12.8 (18.0)	18.4 (14.0)
總投資率			34.5

(註): () 計劃值

世界 여러國家들의 1957年부터 1967年 期間의 經濟成長率을 보면 다음表와 같거니와 一般的으로 5%정도가 平均値에 해당되며 蘇聯의 6%水準이나 日本의 9%水準은 高度成長에 屬한다고 할 것이다.

特定國家의 國民總生産의 成長率 比較

	1956-1961	1962-1966	1962-1967
日 本	10.9	8.6	9.5
蘇 聯	6.4	5.6	5.4
美 國	2.1	5.6	5.1
이 탈 리 아	6.2	5.1	5.0
프 랑 스	4.9	5.4	4.8
西 獨	6.2	4.3	3.2
英 國	2.9	3.0	3.1

北韓의 경우 經濟成長率은 社會主義工業을 試圖하는 모든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初期 5個年計劃期間에는 무려 21%로 알려져 急速한 成長速度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바가 있었지만 7個年計劃 (1961-1970)이 失敗되어 3年延長 되었던 期間에는 計劃値에도 훨씬 미달하는 年平均 8.9%이었다. 그리고 6個年計劃(1971-76) 期間에는 10.6% (經常價格)로서 어느정도 規模가 커진 經濟의

擴大過程은 初期와 같은 不可思議의 成長率은 期待할 수 없기 마련이지만 그나름대로는 상당한 高度成長을 이룬 셈이다. 특히 工業成長率이 7 個年計劃期間에 年平均 12.8%, 그리고 6 個年計劃期間에 年平均 18.4%로서 工業優先發展이 集中的으로 이루어진 事實을 충분히 感知할 수 있겠다.

그런데 接續的인 GNP의 高度成長이 軍事潛在力으로서 作用하는 局面을 "크라우스·노어"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北傀는 이 같은 高度成長速度에 의해서 상당한 軍事力培養과 軍事潛在力을 지니고 있다고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經濟成長은 軍事潛在力에 관해서 첫째 效果가 直接的으로 作用한다는 點이다. 北傀의 GNP를 77年 水準으로 50億弗 이라고 할때 年間 10% 成長率이라 해도 5億弗이 나오며, 이것을 全量 軍事力造成에 投入한다면 從來 GNP의 12%에 해당되는 軍事費支出에 追加投入된 合計는 적게 잡아도 15億弗은 無難하게 軍事力量으로 活用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動員에 의하지 않고도 高度의 經濟成長率은 民間消費를 抑止시키는 經濟構造下에서 쉽게 追加的 國防資源 配分으로 直結될 수 있다는 點이다.

둘째, 急速한 GNP增加는 一般的으로 勞動力 供給의 增加, 資本蓄積 企業의 經營合理化 및 技術進歩를 이룩하는 條件이 되며, 또한 指標가 되는 바인데, 北傀의 경우 이같은 面에 있어서는 根本的인 經濟構造와 이에 따른 施設, 勞動力 配置 및 企業所經營의 合理化에 改革의 절박한 狀況이 展開되고 있는 것 같고 이때문에 推定컨데

21億弗에 達하는 對外 累積債務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經濟的 軍事潛在力으로 組織화된 北傀經濟의 경우 軍事力의 새로운 量的擴大와 質的인 面에서의 改善要求 그리고 戰術次元의 獨自防衛力을 構築하는 段階로서는 그러지 않아도 一般産業 그自体도 低開發水準에서 高度産業化段階로 移行되는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發生되는 經濟改編과 더불어 現代화된 軍事力量으로 集結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른 副作用과 無理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高度經濟成長率의 持續화가 自招한 結果이면서 동시에 새롭고 深刻한 問題點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70年代이후 三大技術革命을 부르짖고 工產品原価의 30-40% 節減을 강요하며, 原料의 70-80% 自給化를 促求하는 現象이 國內的으로 表出되고, 對外的으로는 輸入超過와 對外債務의 累積現象이 問題點으로 抬顯된다.

셋째로 高度의 經濟成長率이 繼續 膨脹해가는 動態經濟는 經濟的 軍事潛在力의 見地에서 볼 때 政治的으로 集中되는 軍事力造成的 努力을 別로 어려움 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軍需生産課業을 附與할 수도 있다. 또다른 側面에서는 持續的으로 成長하는 高度經濟가 民間部門의 個人消費, 投資, 公共支出을 削減하지 않고 現行水準을 몇 年間 維持하면서 追加的인 成長經濟力만 가지 고도 軍事部門에 더 많은 資源配分을 行할 수 있다는 點이다.

" 크라우스·노이教授는 이같은 原理를 實際로 美國經濟에 導入해서 아래와 같은 모델을 세우고 表를 만들어 揭示한 바가 있다.

經濟成長과 軍事力 造成

(單位：%)

年 度	1 次 年	2 次 年	3 次 年	4 次 年	5 次 年	6 次 年
國 民 總 生 產	100.00	105.00	110.25	115.76	121.53	127.61
投 資	15.00	15.75	16.54	17.47	18.24	19.15
非軍事公共支出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個 人 消 費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軍 事 費	10.00	14.25	18.71	23.29	28.29	33.46

이 表에 의해서 본다면 GNP를 1年次, 2年次 및 5年次로 年平均 5%씩 成長시켜 간다하여도 國防費를 GNP의 10%로 配分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만일 當事國이 軍國主義國家라든가 繼統的인 軍事力建設의 必要性이 切迫한 狀況이라면 그나라의 軍事費는 急速히 膨脹시킬 수 있다는 入力→出力의 關係가 실제로 立証된다고 하겠다. 表에서 國民總生産은 1次年을 基準年度로 하여 年間 5%씩 成長해가며 이에따라 軍事部門投資를 年間 5%이상 增加시켜가면서 이때 非軍事公共支出이나 個人消費는 一切 變動없이 同一한 水準에서 持續시킴으로서 軍事費支出은 結果적으로 GNP의 10%水準에서 늘려 갈수가 있고, 基準年度의 軍事費보다는 1年後에 50%를 增加시키며 5年後에는 300%라는 엄청난 膨脹을 可能케 한다는 原理이다.

이상의 모델의 要旨는 經濟成長에 있어서 他條件이 同一하다면

大規模의 軍事力建設을 손쉽게 할 수가 있고, 民間部門의 消費者에 대해서는 追加的消費要求만을 간단히 拋棄하므로써 그 以上の 餘리
를 줄라메는 耐乏없이 高度成長에 의한 生産資源을 軍需生産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는 論理이다.

北傀의 高度經濟成長率과 결들여서 이같은 모델을 適用한다면 처
음부터 모든 "이데오로기"나 政治力量 및 經濟体制가 軍事力建設에서
置重되어 있는 狀況속에서 그들 軍事力建設을 몇年内에 莫強한 水
準으로 올려 놓을 수 있다는 結果를 얻을 수 있다.

1970年을 基準으로해서 北傀의 經濟成長率이 年平均 10%씩 增
加해 왔다면 投資도 10% 이상 增大시킬 수가 있고, 이들이
다같이 軍事部門에 集中된다고 보아 (실제로 北傀經濟에서 投資率은
年平均 35% 以上으로 示顯되어 왔음) 다른 非軍事部門 公共支出이
나 住民의 消費에 追加消費要求를 抑止시켜도 軍事費는 GNP의
10% 以内에서 勘案해도 1年後에 50%, 그리고 3年後에는
300% 以上 增加가 可能하다. 이를 실제로 假定해 볼때 北傀의
1970年度 軍事費가 8億弗이 었든바 71년에 12億弗로 增加 投入
될 수 있고, 75년에는 240億弗이 增加 投入될 수 있다고 볼때
充分한 可能性은 가지고 있다. 이때 脆弱点으로는 GNP의 分母가
워낙 극소한 50億弗 정도 이라는 点이다.

美國과 같은 大國經濟와는 달리 成長增加分自体가 5億弗 정도이
어서 어려운 難点이 있는 反面 体制自体가 軍事組織化体制이고 住
民消費가 극도로 抑制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 軍事力建設이

될 수 있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넷째로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經濟的軍事潛在力을 成長能力 以上으로 活用해야 되는 原理가 있다. 앞서 指適한 바와 같이 北傀와 같은 경우 成長部分만큼 만이라도 全國力을 軍事力建設에 投入한다는 일이 충분히 可能하다고 論證하므로써 軍事潛在力을 그대로 顯在化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번에는 經濟의 成長部分은 물론이고 成長部分 이상으로 民間部門의 資源에 대해서 軍事部門으로 轉用해야 되는 原理를 말한다.

一般的으로 軍事力이란 現代와 같은 物量戰爭의 性格속에서 大量 軍需物資의 調達과 軍需裝備의 超現代式體制로의 確保가 必須的이지만 北傀와 같은 경우 共產主義國家의 共通된 形態이지만, 즉 精神戰力은 더 큰 比重을 두기 마련이다. 軍事力量을 最大로 發揮함에 있어서 物質的인 힘 뿐만 아니라 精神戰力을 同時에 動員시킬 수 있는 方法으로 國民總生産을 一定한 國民의 最小生存水準에 묶어 두고 經濟의 高度成長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成長部分 以上으로 資源을 民需部門에서 빼돌려 軍事部門에 轉用하는 일이 妥當하다는 原理이다.

經濟成長의 進行은 ①國民의 富의 蓄積에 의한 生活水準의 向上과 ②餘暇活用に 의한 國民活動의 弱화 ③勞動의 一貫性을 萎縮시키고 ④戰爭目標의 達成을 위한 犧牲精神을 잠식하며 ⑤이에 따른 質的으로 軍의 勇猛性 및 士氣를 低下 시키는 副作用이 크기 마련이다. 歷史上으로 보아도 文化中心地國民이 野蠻族에 의해서 충

분한 經濟力과 우수한 軍事裝備에도 불구하고 侵略당하고 敗戰된 事例는 많다.

北傀의 경우 精神戰力의 必要性은 그들이 資本主義的 物量戰爭에 대해서 "이데오로기"를 앞세운 人民解放戰爭을 目標로 한다는 點에서도 立証되며, 때로는 非正規戰을 遂行하는 面에서도 國家의 모든 經濟組織이나 全地域 및 全人民을 軍事路線으로 끌어가야 되는 面에서도 다같이 國民을 經濟成長率보다 더 많은 收奪로 最小生存水準에 묶어두는 方式이 適用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現象은 資本主義國家에서는 ①民間部門購買力抑制 ②인플레이에 의한 強制貯蓄 ③높은 租稅負擔에 의한 直接轉用等 方法으로 軍事部門의 財源을 確保하는데 비해서 北傀와 같은 共產主義國家는 ①稅金徹廢에 의한 蓄積펀드의 轉用 ②食糧을 비롯한 衣服 및 住宅의 配給制 및 割當에 의한 國民生存水準抑止 ③軍事組織化에 의한 國民生活体制의 構築에 의해서 一面 軍事潛在力의 活用을 戰時動員體制로 編成시켜 놓고 他面 모든 經濟力量은 標準화된 軍事力으로 共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말로 高度의 經濟成長은 軍事潛在力을 增大시키고 다른한편 軍事部門과 國民經濟와의 結合된 循環構造는 拡大再生產過程을 통해서 國力(經濟力量과 軍事力)의 增強에 寄與하므로 北韓의 경우 軍事部門에의 더 많은 資源配分은 必然的이라고 보인다. 비록 GNP 規模는 낮지만 經濟成長率이 높은 國家는 GNP는 높아도 成長率이 낮은 國家보다 軍事力을 強力하게 活用할 뿐만 아니라 이를 追及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北韓의 産業力量과 軍事潛在力

北傀의 産業力量, 특히 工業生産力은 軍産複合體系로서 結合된 軍需生産能力을 表出시켜 준다는 뜻에서 重要性을 더하고 있는바 다음章에서 展開될 國防資源力量과 關聯시켜서 그産業潛在力을 把握해 보기로 한다.

보통 一國에서 長期的인 軍事目的을 위해 國防資源을 動員해야 할 事態에 處하게 될때 "크라우스·노어"教授의 指摘에 따르면 一國의 經濟的 軍事潛在力은 産業力量으로서 增大되는 傾向이 있기 마련인데 (1) 總生産의 一部로서 製造業의 擴大 (2) 製造業에 있어서 資本財(例를 들면 機械工具, 트랙터, 鐵道車輛등)의 比重增大 (3) 消費財의 耐久財(例로서 冷蔵庫, 家庭用 電子製品등)比率의 增加 (4) 勞動의 地域的 및 職業的 移動의 增加 (5) 生産轉換과 工場管理의 融通性增大등을 들수 있다.

왜냐하면 軍이 必要로 하는 莫大한 量의 補給品은 製造業分野이며 資本財産業은 軍需와 直結되어 있지만 消費性耐久財産業도 広範하게 軍裝備로 轉換生産이 可能하며 (例를들면 트랙터, 自動車, 船舶과 電子製品등의 軍用轉換) 따라서 製造業은 膨張되는 軍需生産分野를 위한 새로운 工場設備, 資材 및 機械工具등을 提供하는데 主樞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公益事業 역시 輸送, 電力生産, 通信등이 다같이 軍事用과 直結된다고 할것이다. 産業生産의 軍事潛在力으로서의 價値는 被服, 化粧品, 飲料水나 漫畫冊의 生産에서 오는 利益보다 宇宙工

학이나 電子工学 및 生産財産業을 主軸으로한 基幹産業 (Key Industry) 에서 絶對的인 價値를 얻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北傀의 産業力量이 어느정도인가 그리고 産業의 軍事 潛在力으로서의 能力은 어느정도 水準인가.

北韓은 이미 1945年 解放當時부터 南北의 地理的인 特性差로 인하여 全体賦存資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로써 우리나라 重工業의 約 80%를 包含한바 있었다. 軍需重工業의 基幹이 되는 鉄鉍石의 90% 이상, 無煙炭의 87%, 有煙炭의 98%가 이미 北韓에 偏在되어 있으며 豊富한 水資源과 이를 土台로한 電力生産의 92%, 約 90萬9千kw 施設 容量을 保有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鉄鉍地下資源과 動力資源을 바탕

1940年 北韓의 工業生産 (單位: 百萬圓)

	北 韓		韓 国	
	生産額	比率(%)	生産額	比率(%)
重 工 業	549	79	138	20
化 学	411	81	91	18
金 属	123	90	14	10
機 械	15	28	33	72
輕 工 業	241	31	562	69
紡 織	30	15	171	85
食 料	115	35	214	65
其 他	96	35	177	65

資料: 統一院, 南北韓部門別 經濟力比較 및 長期豫測 1972.

으로 金屬工業의 發展이 有利하였고, 따라서 機械工業 및 建設業에 連結되는 一聯의 過程을 自體的으로 解決할 수 있으므로서 軍需工業을 일찌기 本軌道에 올려놓는 基盤이 되었다.

一般的으로 金屬工業에서 鉄鋼의 生産 및 消費量은 産業的 軍事潛在力의 決定인 指標가 되며 現代에 있어서는 輕金屬合金으로서 알루미늄의 重要性 및 合成樹脂 등 資本財의 生産이 다같이 重要性을 지닌다고 하겠다.

北韓에는 이미 解放當時 부터 約 60 萬톤의 製鉄施設과 約 16 萬톤의 製鋼施設이 集結되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有利한 基盤위에서 社會主義式 重工業優先政策下에 發展을 促進하고 이것이 軍需工業兵器生産의 基幹이 되어온 것도 事實이다.

北韓의 主要鉍物理感量

	北 韓	韓 國
石 炭	7,900 億톤	1,470 億톤
鉄 鉍石	1,300 "	121 "
重 石	232 萬톤	1,275 萬톤

※ 資料 : KDI, 南北韓經濟現況比較 (1975)

1970年 北韓의 7個年計劃이 3年延長 끝에 終了되었을때 第5次 勞動黨大會報告를 통해서 「工業總生産額은 基準年度보다 3.2倍로 增大되어 …… 社會主義工農經濟에서 社會主義 工經濟」段階로 到達되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그네들의 報告를 額面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産業能力을 評價하는데 몇가지 問題點이 指摘된다. 첫째, 1970년에 와서야 工經濟段階에 到達되었다고 承認하는 그自体가 이제야 工業化의 本軌道에 올랐다는 水準을 提示한 것으로 看做되고, 둘째로는 實際의 実績値로 發表된 結果가 韓國에 比較해 볼때 비슷하거나 못한 水準에 있어서 오히려 誇張報告가 이정도일 때에야 3.2倍라는 높은 伸張을 했는지는 몰라도 當初의 基準이 얼마나 낮았으며 実績 評價도 그水準은 그리 높은 水準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點이다. 實際로 南北韓의 産業水準 및 經濟力比較는 1969年度를 期點으로 해서 韓國이 北韓을 앞지르기 始作했다고 事實이 立証되고 있다.

南北韓의 主要經濟指標(1969)에서 보는 바와같이 韓國은 GNP에 있어서 60.7億弗 對 29.5億弗로 앞서고, 1人當 GNP에서 223弗 對 210弗, 經濟成長率에서 12.6% 對 8.6%, 그리고 工業成長率에서 24.1% 對 12.7%로 앞지르고 있는 反面 北韓에 대해서 國內貯蓄率 18.3% 對 30.0%로 工業總生産에서 12.2億弗 對 19.5弗로, 그리고 軍事費支出에서 2.9億弗 對 7.0億弗 및 1人當 軍事費에서 8.9弗 對 52.8弗로 뒤지고 있는 實情이다.

이만한 對比水準위에 向後 經濟成長率이나 工業成長率이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經濟 및 工業水準의 加速度를 豫見해 주는 뜻에서

밝은 展望이었다。

南北韓의 主要經濟指標 (1969)

	韓國	北韓		韓國	北韓
① GNP (億 弗)	60.7	29.5	⑧ 工業總生產 (億 弗)	12.2	19.5
② 人口 (萬 名)	3,114	1,405	⑨ 工業成長率 (%)	24.1	12.7
③ 1 人 當 GNP (弗)	223	210	⑩ 食糧生產 (萬 噸)	774	349
④ 經濟成長率 (%)	12.6	8.6	⑪ 政府豫算 (億 弗)	13.1	23.3
⑤ 國內貯蓄率 (%)	18.3	30.0	⑫ 軍事費 (億 弗)	2.9	7.0
⑥ 가치 분 所得 (弗)	173	116	⑬ 1 人 當 軍事費 (弗)	8.9	52.8
⑦ 產業構造 (%)	100	100	⑭ 貿易 (億 弗)	24.8	5.5
1 次 產業	29.4	18.3	輸 出	6.6	2.8
2 次 產業	24.8	64.2	輸 入	18.2	2.7
3 次 產業	45.8	17.5			

資料 : 金完淳 「北韓의 消費構造」 亞細亞研究, 1976. P40

또한 6 個年計劃期間 동안에도 北韓의 產業水準은 힘겨운 開發努力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報告에 비추어 본 南北韓 對比는 顯著的한 北韓의 劣位로 나타나고 結局 6 個年計劃을 1 年半 앞당겨 達成했다는 結果 역시 未洽한 것이어서 韓國에 뒤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미 1975 年 10 月에 別途로 達成키로한 「十大基本建設目標」까지 提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北傀의 「十大基本建設計劃」은 ① 鐵鋼生産 1千2百萬噸(六個年計劃目標는 380萬~400萬噸) ② 非鉄金屬 100萬噸(比較없음) ③ 石炭生産 1億噸(同計劃 5千萬噸~5千3百萬噸) ④ 電力生産 5百億kw H(2百80億~3百億kw H) ⑤ 시멘트 3千萬噸(7百50萬噸~8百萬噸) ⑥ 機械類製品 5百萬噸(比較없음) ⑦ 水産物 5百萬噸(百60萬~百80萬噸) ⑧ 化学肥料 5百萬噸(280萬~3百萬噸) ⑨ 干拓地開墾 10萬町歩(3萬町歩) ⑩ 穀物 千萬噸(7百萬~750萬噸) 以上과 같이 엄청난計劃을 発表한바 있다. 6個年計劃目標만을 達成해도 큰 成果로 看做해야 될터이고 실제의 実績이 目標達成을 했는자 조차 不分明한 차제에 있어서 「十大基本建設目標」야 말로 첫째, 北韓의 80年代 意慾이 아니겠는가, 둘째, 그정도의 水準이 北韓을 正常的인 社会主義 工經濟技術의 産業潛在力量이라고 提示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셋째, 韓國의 비약적인 經濟發展을 보고 對 韓國優位の 經濟力量을 그程度로 設定한 것이 아니겠는가등의 分析을 導出해 볼수 있을것 같다.

北傀는 6個年計劃目標 자체도 1年半 앞당겨 達成되었다고 宣傳하고 있지만 이미 1960년에 5個年計劃 終了後 있었던 것과 꼭같은 이른바 緩衝期經濟期間을 策定하고 벌써 2年동안이나 다음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는 現事態에 바꾸어 볼때 6個年計劃의 実績 조차 크게 疑心되는 바인데 더구나 「十大基本建設計劃」의 目標야 말로 北傀의 産業潛在力이 지너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虛像인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北傀의 現狀에 비추어본 軍事的 産業潛在力의 實像은 어느 規模로 보아야 할것인가.

6 個年計劃의 實績이 北傀發表대로라면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發電 施設容量 5 百萬kw 및 石炭生産 5 千萬噸등 상당한 "에너지"源의 基礎를 가지고 있는듯이 보이면 이 두業種은 韓國보다 높은것 같다.

그러나 北傀産業의 決定的인 欠陥은 "에너지"源으로서 精油處理能力의 貧弱함에 있고, 石油資源의 活用이 없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에너지"源의 全體能力은 韓國보다 훨씬 貧弱할 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源油處

北韓의 産業生産水準

	5 個年計劃 1960 年實績	7 個年計劃 1970 年實績	6 個年計劃 1975 年實績	十大基本建設 計劃目標
國民所得成長(%)	21	8.9	10.6	
工業成長率(%)	36.6	18.0	18.4	
發電施設容量(kw)	104.3	280	500	500
發電量(억KWH)	91.4	165		
石炭(萬噸)	1,062	2,750	5,050	1 億
銅 鐵(萬噸)	84.1	220	329	1,200
化學肥料(萬噸)	56.1	156	300	500
시멘트(萬噸)	228.5	400	683	3,000
織物(억 m)	1.9	4	5.8	
알곡(萬噸)	380	500	770	1,000
水産物(萬噸)	46.5	80	166	500
트랙타生産(台)			21,210	
工作機械生産(台)			30,000	

資料 : 5 個年 및 7 個年實績値는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上券 P420
6 個年實績値는 統一院「北傀 6 個年計劃綜合評價」 PP58~54

리에 의해서 近代産業製品으로 각광받고 있는 石油化学製品의 原料源 및 燃料用으로서 특히 動力用으로서의 役割은 不振하기 한량없고 이때 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 石炭液化라든지 石炭化学 및 石灰石 카바이트에 의한 비날론工場등이나 그역시 品質面에서나 數量面에서 石油化学을 當해낼수 없는 實情이다.

이같은 産業潛在力의 低調現象은 물론 앞에서 提示한 그네들의 「十大基本建設目標」에서도 過慾을 찾아 볼수 있지만 石炭生産 1억噸 目標라든지 發電量 現 2百80億kw H를 500억 KWH로 策定한데 서도 나타나지만 6個年計劃実績에서 鉄鋼生産이 329萬噸에 不過하다는데에서 具體적으로 立証된다고 할것이다. 石炭 및 電力生産에 비추어 본다면 훨씬 不振한 鉄鋼生産은 그들이 적어도 石油化学의 低調에 비추어 5百萬噸은 넘어야 産業均衡 맞는다고 할수 있을 터인데 7個年計劃実績에서 220萬噸 그리고 6個年計劃実績에서 329萬噸에 不過한것은 全体的인 産業力量의 低位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만, 鉄鋼의 1人當 生産에 있어서는 0.21噸으로 그래도 韓國의 2倍임을 判斷해 볼때 軍需産業의 産業潛在力으로서는 특히 在來式 軍裝備의 경우 상당한 能力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産業의 軍事的潛在力의 水準은 石油精製産業 및 石油化学이 있어야 할터인데 그점에서 北韓의 低位를 勘案해야 할것이고 그代身 鉄鋼에서는 水準級을 認定하나 石油部門을 補鎮할 만큼 충분치 못하며 또 한가지 産業潛在力의 判別에 있어 重要한 基準이 되는 것으로 工業

에 從事하는 勞動力比重이 關鍵인바 이에 관해서는 資料를 찾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특히 産業別 勞動力의 構成과 製造工業의 勞動力 그리고 이들 勞動力의 量뿐만 아니라 科學技術者, 熟練工의 모든 比率 即 "화이트칼러"와 "블루칼러"의 比重 그리고 研究開發費(R&D)를 충분히 把握하므로써 確實한 産業潛在力을 評價할수 있겠으나 이에관한 比較 研究는 不分明하다.

北傀의 産業力量이 鉄鋼을 中心으로한 非鉄金屬에 이르기 까지 石油 化學을 除外한 部門에서 상당한 水準이라는 事實은, 그리고 특히 鉄鉍 石의 採掘에서 부터 鋳鉄 및 圧延 鋼材에 이르기 까지 國産化의 一 貫作業體系를 갖추고 있다는 事實은 一般 國民經濟施設材로서가 아니라 主로 特殊鋼을 爲主로 한 軍兵器生産을 爲主로 한것이 立証된다.

即 兵器 及 軍裝備 軍事施設의 資料供給이 상당한 水準에서 國內의 으로 이미 解決하고 있다는 事實을 立証하여 준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北傀와 같이 軍事經濟의 原理下에 工業力量을 가지고 있으므로 本質的으로 消費工業의 建設이 아닌 바로 軍裝備의 産業潛在力이라고 規定할수 있을 것이다.

北傀産業의 軍事潛在力을 評價함에 있어서 關鍵은 工業의 質的 構造 的 設備및 技術水準인데 이번에 관한한 脆弱性은대단히 큰것으로 判斷 된다. 金日成은 6 個年計劃의 工業部門의 課題를 指摘해서 「工業部門 的 内部構造를 完備해서 工業의 主体性을 한층 強化해야 한다. 적어도 새로운 建設을 하는데는 動力工業과 採取工業의 發展을 確固히

해서 優先시켜야 할 것이며, 모든 工業部門에서 살붙이는 일을 主力해이 할것이다」라고 하므로서 北韓에서 生産設備의 稼動率이 設備自体의 欠陥으로 크게 低下하고 過去의 建設이 拙速主義에 빠져 障礙를 일으키고 있는 實情을 反映하고 있다.

실제의 例로서 製鐵所의 溶鉍爐는 항상 故障과 修理로 稼動率이 低調하고 機械製作工場은 規格에 맞는 原材料가 円滑하게 供給되지 못해서 遊体狀態에 빠지며, 化學工場은 必要한 設備의 不備가 겹쳐서 收益率이 항상 低調하다고 한다. 거기다가 兵器生産分野의 機械工業 一貫體制를 除外한다면 裝置系産業인 重工業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勞動集約的인 生産方式의 作業場을 工場으로 택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工具, 勞動力이 簡易設備를 主로한 生産手段으로 活用되게 마련이고, 稼動率 낮은데다가 그나마 無理한 目標量의 達成으로 인하여 設備保全, 維持가 어렵고 故障으로 操業不能狀態를 招來한다는 内部欠陥이 문제이다. 즉 전반적으로 設備投資의 不足, 勞動集約的인 重工業, 稼動率의 低調등 때문에 生産코스트는 日本의 5倍, 韓國의 3倍라고 指摘된다.

따라서 北韓의 一般的인 産業潛在力은 質的인 面에서 内部欠陥이 많고 脆弱하기 때문에 軍需部門의 重工業 및 機械工業의 상당한 顯在的力量 조차도 産業潛在力의 脆弱性으로 水準以下의 能力밖에 發揮할수 없을것으로 評價된다.

가. 工業의 部門別 産業潛在力

北傀에서 6 個年計劃末期에 自力更生을 앞세워 모든 工業原料의 「60 ~ 70% 自給化」를 目標로 삼아 왔지만 이를 뒤집어 解析하고 對外累積負債와 關聯된 對外貿易依存을 풀이해 보면 헛소리 北傀의 産業內部構造의 面貌를 알아 볼것 같다.

모든 工業部門에서 「原料의 60~70 自給化」는 바로 金日成이 말하는 「工業部門의 主体性」과 통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輸入原料依存의 深刻함을 말해준다.

部門別로 보아서 海外輸入의 工業原料는 鐵鋼材를 위시로 合成纖維原料, 化學製品原料, 醫藥品原料, 電子製品附屬品, 石油化學原料등 原材料와 附屬品등이다 (對日輸入의 趨勢임)

日朝貿易이 急激히 增加한바 있고 北韓의 工業能力에 限界에 다다른 轉換點을 根本적으로 露呈시키기 시작한 1972 년에 北傀가 日本에 對해서 행한 輸入商談에서는 갑작스런 鐵鋼材類의 要請이 50 萬噸에 達하였었다. 적어도 北韓生産量의 5 分の 1에 該當하는 量인 이같은 輸入要求는 특히 鐵鋼材 중에서도 圧延鋼材類가 大部分을 占有한 사실에 비추어 불래 製鐵設備와 모든 技術이 統砲生産을 爲主로 한 軍需兵器의 原材料로써 必要한 鍛造에 置重되어 있음을 立証해 주며 그때분엔 50 萬噸의 別途의 圧延鋼材類를 必要로 하였다고 볼수 있다.

1972 年~ 73 年の 2 年동안 北韓이 日本으로 부터 輸入한 工業用資材 속에 대부분을 占有하는 品目들은 다음 表와 같이 主로 鐵鋼材

北韓의 主要工業製品의 生産額

(1975 年8 月末 現在)

品目	指標	目標年度(76年)에對한遂行率(%)	1970年對比(倍)
電力		102	1.7
石炭		101	1.8
錠鐵·粒鐵		92	1.7
鋼鐵		86	1.5
化學肥料		109	2.0
비나론		114	3.6
鹽化비닐		108	3.3
工作機械		111	2.4
트랙타		101	8.7
自動車		103	2.4
시멘트		91	1.7
織物		116	1.8
內衣		105	1.5
畚타		268	5.6
양발		115	2.2
水産物		104	1.5
食用品生産		102	2.4
日用品生産		113	2.0

資料：北韓中央統計局報道(1975.9.22)

이고 電氣機器의 附屬品들이며 亜鉛鋅, 鉛鋅 및 銅鋅이며 一部 化學品이다. 一般的으로 共產圈의 國家들이 흔히 輸入하고 있는, 石油類, 石油化學製品, 油脂類, 二次金屬, 고무類 등은 전혀 北韓의 輸入原資材로서 包含되어 있지 않다.

北韓의 對日本輸入原資材

品名	單位	1972~73 輸入量
銅 鋅	噸	3,050
鉛 鋅	"	1,466
亜鉛 鋅	"	10,750
纖維原料	"	11,399
有機化學品	"	6,756
無機化學品	"	6,309
醫藥品原料	"	18.3
人造프라스틱	"	7,206
鉄 鋼 材	"	124,253
電氣附屬品	個	約 200,000

이같은 사실은 첫째, 北韓의 產藥力量이 새로운 轉換點에 있어서도 軍事力建設을 위한 工業部門에 계속 重視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둘째 6 個年計劃에서 主로 주장하는 工業原料國產化와는 거리가 먼 現狀을 實証해 주며, 셋째 北韓의 工業潛在力은 石油化學의 不振속에 주로

対日本 - 北韓貿易商品構成 (1973~75年)

(北朝鮮の輸出)

(単位: 1,000 弗)

品目	年別	数量 単位	1973年		1974年		1975年		前年比 (%)
			数量	金額	数量	金額	数量	金額	
総額				72,318		108,824		64,839	-40.4
食料品				10,116		9,411		7,642	-18.8
魚介類	MT	9,346	6,987	8,656	6,678	7,257	4,378	-34.4	
果実・野菜			1,328		1,029		1,800	+74.9	
原料品			27,009		38,421		24,482	-36.3	
生糸	MT	372	11,790	503	12,003	189	2,842	-76.3	
鉄鉱石	MT	423,000	6,220	305,000	5,231	203,000	3,256	-37.8	
非鉄金属鉱物	MT	-	-	48,203	9,851	38,641	7,837	-20.4	
非金属鉱物	MT	125,679	5,086	41,510	7,805	46,172	7,404	-5.1	
天然黒鉛	MT	17,513	487	120,185	909	119,025	972	+6.9	
마그네시아 크랑카	MT	37,026	1,979	62,003	4,012	51,670	3,392	-15.5	
石英	MT	3,855	455	7,845	739	9,900	426	-42.4	
ステアタイト	MT	27,643	974	17,568	814	14,511	663	-18.6	
タルク	MT	27,254	784	22,720	846	29,821	1,105	+30.6	
鉱物性燃料			982		8,264		1,184	-85.7	
石炭	MT	46,000	982	237,000	8,264	37,000	1,184	-85.7	
無煙炭	MT	46,000	982	237,000	8,264	37,000	1,184	-85.7	
加工製品			33,778		52,605		31,393	-40.3	
化学品			1,379		779		920	+18.1	
精油・香料	MT	26	194	28	507	36	634	+25.0	
機械・機器			57		60		12	-80.0	
其他製品			32,342		51,766		30,461	-41.2	
銑鉄	MT	77,439	7,161	85,419	17,108	89,613	9,158	-46.5	
非鉄金属			23,511		34,006		20,238	-40.5	
銀・同合金	MT	81	5,967	83	11,468	22	2,970	-74.1	
亜鉛・同合金	MT	16,172	13,987	11,451	15,843	18,002	13,214	-16.6	
鉛・同合金	MT	7,206	3,365	8,967	6,525	8,490	4,054	-37.9	
再輸出・特殊取扱品			432		123		138	+12.2	

(出所) 大蔵省通関統計

北韓의 生産品 7 個年計画・6 個年計画의 目標과 実績

		7 個年計画 (1960~'70)		6 個年計画 ('70~'75)	
		目標('60)	実績('70)	目標('70)	実績('75)
	工業總生産	3.2倍	3.3倍	2.2倍	2.2倍
	生産手段生産	3.2倍	3.7倍	2.3倍	2.3倍
	消費財生産	3.1倍	2.8倍	2.1倍	2.1倍
	工業生産年平均增加率	18.0%	12.8%	14.0%	18.4%
工業	電力工業				
	總發電能力	330~350萬KW	1.8倍	500萬KW	1.7倍(102%)
	電力生産量	160~170億KW時	165億KW時	280~300億KW時	
	採掘工業				
	石炭生産量	2300~2500萬屯		5000~5300萬屯	1.8倍(101%)
	冶金工業				
	銑鉄 및 粒鉄	220~250萬屯		350~380萬屯	1.7倍(92%)
	鋼鉄	220~250萬屯		380~400萬屯	1.5倍(86%)
	圧延鋼材	160~180萬屯	2.2倍	280~300萬屯	
	機械工業				2.4倍
	트럭타生産量	1萬7100台		2萬1000台	8.7倍(101%)
	工作機械 "	7500台	2.2倍	2萬7000台	2.4倍(111%)
	農業機械 "				3.6倍
	船舶工業				
	船舶生産			3.6倍	
	化学工業				
	化学肥料生産量	150~170萬屯	150萬屯	280~300萬屯	2.0倍(109%)
	化学纖維 "	8~10萬屯	2.4倍	1.9倍	
	合成樹脂 "	6~7萬屯	40.0倍	3.0倍	
	医薬品 "		4.0倍	2.5倍	
医療器 "		7.4倍	2.4倍		
建材工業及林業					
시멘트生産量	400~450萬屯	500萬屯	750~800萬屯	1.7倍(91%)	
板유리 "	1000萬平方메타		1.8倍		
마그네시움크링카		5.0倍	160萬屯		
木削板	50萬平方메타		3.2倍		
木質纖維板	3萬屯		6.8倍		

		7 個年計畫 (1960~'70)		6 個年計畫 ('70~'75)		
		目標 ('60)	実績 ('70)	目標 ('70)	実績 ('75)	
工業	經 工 業	紡績工業 織物生産量	4~5億메타	4億메타	5~6億메타	1.5倍(105%)
		編織物 "				
		內衣類			1.4倍	1.5倍(105%)
		靴類			2.1倍	5.6倍(268%)
		양말工業			1.8倍	
		皮靴生産量	10.0倍		1000萬足	2.2倍(115%)
		製紙工業				
		紙生産量	25萬屯	2.4倍	1.8倍	
		食料工業				
		副食物加工品生産			2.6倍	
		調味料生産量			2800屯	2.4倍
		果物加工品生産	12.0倍		9.2倍	(102%)
		清涼飲料生産	9.0倍		4.3倍	
		日用品工業	4.2倍			2倍(113%)
아우닝製品生産			2.8倍			
유리製品生産			5.2倍			
陶磁器生産			2.3倍			
時計生産			2.5倍			
	水産業	水産物生産量	100~120萬屯		160~180萬屯	1.5倍(104%)
農業	農 業	穀物總生産	600~700萬屯		700~750萬屯	74年 達成
		畜産物				
		食肉	35萬屯		40~50萬屯	1.4倍(74年)
		卵	8億個	7億個	30億個	1.8倍(74年)
		牛乳			6萬屯	
		羊毛			2500屯	
	果樹業	果實總生産高	50萬屯	2.0倍	80~1000萬屯	1.5倍(74年)
運輸業		鐵道貨物輸送量	7500萬屯		1.7倍	
		船舶 "	2.3倍		1.7倍	
		自動車 "	2.9倍		1.8倍	

注 ; () 内는 6 個年計畫目標에 對한 達成率임 .

機械 및 鐵鋼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鐵鋼分野, 電氣附屬品이고 또한 비닐론纖維의 自給이라는 宣傳과는 달리 品質과 數量에 있어 새로운 纖維原料의 海外依存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①北韓은 電力部門에 있어서 增設을 서둘러 6個年実績이 500萬kw 施設容量이라고 하면서도 深刻한 電力不足에 苦心하고 있다.

그네들은 電力을 戰略産業으로 活用하여 「電力을 크게 사용하는 工業이 擴大되고 人民經濟의 여러 部門에서 半自動化 및 自動化가 광범하게 實現 되려면 産業分野의 電力需要는 커지기 마련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軍事經濟的 觀點에서 볼 때 바로 軍事戰略的인 意味의 電力不足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이미 7個年計劃때 부터 國防經濟, 戰時經濟로 主力해 온 北韓에서 이른바 四大 軍事路線에 立脚한 「全國土要塞化」의 推進은 電力의 大量需要를 불러 일으켰고, 이때문에 水力爲 主의 当初 發電所建設의 方向까지 바뀌가면서 그나마 火力發電所를 세웠으나 蘇聯의 援助中斷으로 微微하게 되어 결국 電力의 軍事經濟化는 電力能力의 脆弱性을 드러나게 되었다.

②北韓의 採取工業에 있어서도 軍事經濟化의 潜在力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工業原資材輸入의 大量輻輳를 뒷받침한 外貨 需要의 急增을 採取工業이 감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北傀는 採掘工業으로서 石炭生産量만을 500萬噸으로 發表한 것으로 보아서 이역시 다른 鉍物들의 경우 不振한 것으로 쉽게 看做되는 데 採取工業은 重工業部門의 原料供給뿐만 아니라 輸出用原鉍石 및

第1次金屬製品의 生産輸出에도 意味가 큰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貿易構造에 비추어 採取工業을 보면 73年 以後 輸出商品속에 23.3%가 鉍物을 主로 한 原材料이며 輸出에 占有하는 比重은 대단히 크다. 특히 地下 鉍物資源은 完全한 製品으로 生産해서 稼動率을 높여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第1次金屬 鉍物의 狀態에서 輸出商品化에 全力을 기울이고 그나마 充當이 어려운 理由는 6個年計劃의 本質的 目標 그 自体가 軍事的인 産業 力量을 確保하자는데 主力되어 있다는 事實의 立証이라 할 것이다.

北韓에서 採取工業이란 主로 鉍業을 말하는데 그 種目은 石炭, 鐵鉍石, 有色金屬鉍, 非鐵金屬鉍들로서 水銀, 니켈, 重石크롬, 망간, 보카사이트 등인바 이들 開發鉍種은 첫째로 軍事潛在力으로서의 主種 品目들이면서도 둘째 輸出에 의한 시급한 外貨充當으로서 輸出品이라는 二重의 役割속에 놓여 있다. 尙日 非鐵金屬鉍物의 輸出은 73年 5百萬弗 75年에는 7百80萬弗에 達하고 倣연, 마그네시움 등 非金屬鉍物만도 73年 5百萬弗 75年에는 7百40萬弗이며 銀, 亜鉛, 鉛 등 非鐵金屬合金類도 73年 2千4百萬弗, 75年에는 3千4百萬弗에 達하여 原鉍이나 合金製品등이 尙日輸出의 主宗을 이룬다.

③ 冶金工業은 北韓에서 特殊鋼生産이나 輕金屬合金에 의한 軍需兵器 등 各種 軍裝備生産에 主材料이므로 이에 主力해서 6個年計劃期間에 大幅的인 施設代替와 擴張을 推進하였다. 즉 「延鋼材의 品種과 規格은 代代적으로 增加시켜 二次金屬加工製品의 生産을 한층 發展시키며 黑色金屬에 대한 需要를 保障하라」는 施策과 더불어

金策, 降山, 黄海, 413 製鉄鍊所の 既存製鉄能力을 改造하고 拡張하는데 主力하였다. 특히 製鉄을 포함해서 이들 圧延製品은 軍艦의 建造에 크게 充當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당한 冶金水準이라고 보면서도 第1次金屬製品의 輸出까지 걸쳐 目標에 미치지 못하는 生産実績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看做되며 資料不足으로 詳細한 內容은 알기 어렵다. 北傀의 發表에 따르면 6 個年計劃実績에 있어서 銑鉄 및 粒鉄은 320 萬屯에 達하는 92% 達成率을 보이고 鋼鉄 350 萬屯 및 圧延鋼材 280 萬屯의 実績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對日輸出에서도 銑鉄은 1973 年에 7 萬 8 千屯 75 年에는 8 萬 9 千屯 (915 萬 8 千弗) 을 輸出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機械製作工業은 北傀의 兵器生産과 密接한 관련을 가진 分野인바 6 個年計劃에서도 內容은 不分明하면서 크게 強調하고 있는 部門이다. 機械工業이 北傀의 軍事力造成의 兵器生産의 主役인 實例는 6 個年計劃의 強調인 「機械製作工業部門의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業은 大型機械生産을 대대적으로 發展시키는 것」이란 言及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네들이 항상 誇示하고 있는 大型機械生産, 大型프레스, 大型旋盤 등이 모두 大砲의 砲身이나 砲裝備를 製作하는 것과 直結된다는 사실에서 쉽게 判別된다.

물론 大型機械生産의 強調는 항상 鉸山機械, 船舶機械, 運送機械, 農機械 등의 必要라고 말하고 있으나 北傀가 小型의 精密機器나 特殊機械 등은 輸入하면서 유독히 大型機械生産만을 強調하는 것은 軍事兵器를 生産하기 위한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北韓의 모든機械工業水準은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海外로부터 많은 "프렌트" 導入이 이를 反映하며 一般製品으로서 테레비존이나 自動交換設備, 電子計算機 등 電子機器製品은 低位를 免치 못하고 있다. 北傀의 發表는 機械工業으로 "트럭터" 生産을 6 個年計劃実績으로 2 萬千台 工作機械生産은 2 萬7 千台 및 農業機械生産을 3.6 倍라고만 發表하고 있어 餘他分野의 脆弱함을 看做하게 해주며, 對日輸出에서도 機械機器輸出은 73年 5 萬7 千弗, 74年 6 萬弗로 나타나 보잘것 없음을 立証해주는 것으로 보아 軍兵器生産 以外에는 거의 形편없다고 보겠다.

⑤ 船舶工業은 北傀의 最近年間 力점을 둔 工業部門으로서 過去의 經濟計劃에 比해 6 個年計劃에서 갑자기 開發成果를 3.6 倍라고만 發表하고 있다. 大개 2 萬屯級미만의 輸出船 및 小型魚船과 快速艇을 建造하는 것으로 알려져 中型船舶이 爲主로 計劃되어 있지만 실은 北傀의 軍事用船舶이 前에는 小型快速艇으로부터 中型級으로 改善시키는 過程이 反映된 때문이다. 물론 北韓에서 6 個年計劃実績으로 水産物이 1.5 倍가 增加한 160 萬屯 生産이라고 強調하는 것에 비추어 볼때 遠洋漁船, 加工母船, 貿易船 등의 建造도 中型化를 要請하고 있겠으나, 對日 魚介類 輸出이 年間 7 百萬弗에 不過한 実績에 비추어 船舶建造能力의 提高를 갑자기 增加시키고 있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軍用艦艇建造에 있고 한편 中型化에 隨伴해서 高速化는 다소 中速船舶으로 낮아지고 있는 実情이라 하겠다.

⑥化学工業은 北韓의 경우 주로 石炭化学 또는 石灰 카바이트에 의한 비닐론 纖維工業이 主軸을 이루고 있어 그들 計劃에서 無機化学, 有機化学을 分類하고 있기는 해도, 近代的인 石油化学은 이제 新設을 서두르고 있는 実情이라 하겠다. 無機化学은 肥料와 農藥, 有機化学은 化学纖維의 生産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나마 化学프렌트는 尙日輸出을 하고 있는 実情이며 그외 染料, 合成고무, 防腐劑 및 合成樹脂 및 医薬品등 近代化学製品의 生産이 落後되어 있기때문에 軍用 戰略品目으로서도 需要充足을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6 個年計劃實績의 發表에 따르면 化学服料生産이 280 萬屯規模로 2 倍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化学纖維 및 合成樹脂는 각각 1.9 倍, 1.9 倍, 3 倍 增加라고 막연히 提示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質的인 內容은 말할것도 없고 아직 生産体制 조차 不備한것 같다.

⑦建材工業도 軍事用 및 民需用으로 다같이 重要한 戰略品目인바 多様な 種類의 品目を 갖추고 있지 못하고 겨우 시멘트만은 6 個年計劃實績이 91% 增加한 700 萬屯規模로 보이며 板유리生産이 있고 그外 衛生, 暖房設備등은 建築에 별로 考慮할 바가 못되며 비닐建材등 高級建材는 아직 開發段階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극히 微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農業部門의 軍事的 産業潛在力

北韓의 輕工業 消費財部門의 脆弱함과 더불어 食生活의 單純性이 反映되는 農業部門은 이른바 北傀의 「農村經理」라는 表現으로 計劃에 取扱하고 있는데 6 個年計劃에서는 「農村經理의 中心

課業은 卓越한 金日成同志의 天才的 勞作……農村技術革命을 강력히 推進하고 農業生産을 高度로 集約시켜 農民을 힘드는 勞動으로부터 解放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分析해 보면 무엇보다도 農業部門計劃의 勞動集約的 生産方式이라고 하는 것은 軍事經濟의 原理에 直結되는 高度化를 試圖하는 것으로 軍事潛在力을 크게하는 農産物의 増産에 불과한 것이다. 農業生産에 있어서 日常의 消費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非常儲蓄을 重視하는 方針에 따라서 生産技術向上과 生産物保管對策, 農機械作業組織의 獨立運營, 農村住宅의 集團化, 協同農場內의 勞農赤衛隊의 維持등과 연결되고 農業의 軍事的 潛在力을 높이는 刺戟方式으로 生産目標와 戰鬪的 스포간의 채택 및 各種勞動緊張을 導入하고 있다.

北韓은 穀物生産에 있어서 畝은 韓國의 半에 불과하고 田은 約 1.4 倍가 되어 田作中心의 營農을 할수 밖에 없다. 74年 現在 米穀生産量은 韓國이 6百80萬屯에 비해 北韓은 3百42萬屯으로 切半밖에 안되며 그나마 傾斜의 高地帶나 丘陵地帶까지 개간에 안간힘을 쓴 나머지 이루어진 成果로서 더이상의 農業潛在力은 남아 있지 못한 爽情으로 把握된다.

다. 北韓社会間接資本의 軍事潛在力

北韓의 經濟建設을 長期的으로 分析해 보면 눈에 띄게 社会間接資本部門에 대한 극단한 投資抑制로 찾아볼 수 있다. 軍事經濟의 立場에서 풀이해 본다면 經濟效率이나 生産性的 向上이라는 原則이 軍事潛在力의 擴充이나 顕在化된 軍事力造成에 次先順

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經濟建設의 基本要件으로 重視하지 않는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선 投資效果가 長期的으로 擴散되므로 직접적 일수가 없고 製品이나 여러 生産部門에 分散되어 間接적으로 發効되는 때문이다. 道路, 橋梁, 港灣, 通信, 鐵道, 住宅 등의 建設은 軍事所要에도 未達되는 정도로 알려졌고 겨우 最小限의 經濟開發上的 物資輸送에 아쉽게 사용하는 정도로 판단된다.

鐵道와 道路는 겨우 軍事境界線에서 平壤을 向한 南北으로 뻗은 方向에 머물러 있고 이때문에 軍事所要를 充當하려면 産業地帶에 物資輸送은 어려운 狀況이다. 港灣에도 外港船의 接岸施設이 不備하고 道路는 전혀 鋪裝되어 있지 않은 狀態이다. 北韓에서 輸送은 그나마 鐵道라고 한다. 6 個年計劃의 実績發表에서도 鐵道貨物輸送량은 1.7 倍를 計劃하고 있을뿐 發表가 없고 船舶도 1.7 倍 自動車輸送 1.8 倍만이 計劃되어 있을뿐 아무런 發表가 없는데 이는 늘어나는 輸送량을 전혀 擔當해내지 못하고 軍用所要까지도 充當 못하고 있는 狀態를 은폐하기 위한 때문이다.

北韓의 實情으로는 道路建設을 東西方向의 橫斷線이 必須적이고 港灣建設도 東西의 兩則에 外航船을 收容하지 않으면 안되며 鐵道는 京北部와 西北部의 原料生産地와 工業基地間의 輸送問題解決이 急先務인 狀態이다.

道路는 自動車輸送手段과 道路鋪裝이 北韓經濟의 최대隘路로서 대두되고 軍需産業이 原料地와 工場까지의 運送에 있어 鐵道와는 달리 그 重要性은 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 個年計劃에서도

「道路와 橋梁을 補修 整理해서 鋪裝道路區間을 넓히고」라고 되어 별반 對策이 없는 것 같다. 北韓의 地形이 高山溪谷地帶이기 때문에 建設費用이 많이 먹히므로 겨우 南北赤十字會談時에 平壤과 開城間의 道路鋪裝 및 建設한 것과 中部地帶에 東西方向의 道路建設한 実績밖에 없다.

鐵道建設 역시 電化와 內燃化에 着手하고는 있으나 電力不足과 電氣機關車의 性能不良이 限界에 다달았고 非産業地帶의 鐵道에 뒤늦게 디젤機關車를 活用하기 시작하였으나, 施設과 性能이 다같이 隘路에 놓여 있다.

港灣建設에서도 荷役施設容量의 不足으로 海外輸入 物動量의 急增을 處理 못하는 實情이고 이때문에 對日貿易에는 小型船舶을 使用하는 동시에 小港口도 利用하면서 興南과 清津 및 鎮南浦를 擴張하여 왔다.

北韓은 결국 輸送體系에 있어서 自体經濟開發을 담당하기에 크게 애로를 느끼는 輸送難에 直面해 있는가 하면 港灣의 輸出入物動量의 處理에 있어서도 脆弱한 實情임을 勸案해 볼 때 비록 軍事潛在力으로서 輸送手段은 그런 데로 確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軍事力을 위한 技術的 또는 施設面에서의 規模의 産業潛在力을 發揮하는 데로 乘離속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즉 産業의 軍事潛在力은 무엇보다도 社會間接資本의 間接效果에 따른 力量이 主를 이루며 특히 輸送體系의 問題는 緊急事態時 軍事機動力을 發揮하는 主力임에도 불구하고 戰略的觀點에서 지금까지의

閉鎖的인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最大障隘를 自招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結局 北傀에서 天然資源과 이를 토대로 한 産業의 軍事潛在力은 '크라우스·노어'教授의 指摘에 비추어 볼때 첫째 現代 物量戰爭下에서 原資材와 軍裝備의 消耗量을 大量으로 所要한다는 狀況에 따라 '나치'獨逸의 아우타르키 (Autarky) 化의 生存圈域 (Lebensraum) 이 要求될 수 있고 둘째, 對外貿易이 遮斷당한다는 傳統的인 思考方式에 立脚해서 食料와 原資材 및 軍裝備를 「自給自足化」하고 全國 要塞化 및 全人民武裝化로 戰時經濟組織을 構築하며, 셋째 現代戰爭에서 至극히 必要한 軍事科學技術의 決定的인 活用과 軍需物資에 있어서 代替材의 利用 즉 石油化學과 合成纖維등 광범위한 新規物資등이 극히 不振하므로 이를 위한 海外프랜트導入 및 在來式 鐵鋼體系에 의한 非效率的인 軍事潛在力으로서의 産業力量의 破行體制 등으로 集約된다. 첫째에서 一國社會主義式 生存을 거는 軍事重工業經濟를 둘째에서 孤立無援의 自給自足の 軍事資源經濟를 그리고 셋째에서 非現代的 在來式 軍事科學技術에 의한 産業力量의 破行的 軍事潛在力을 歸結지울수 있을것 같다.

六. 北韓의 軍需産業力量과 國防資源 配分

北傀는 이미 1962年 党 5次全員會議 때부터 軍事力에 있어서 蘇聯의 非協助를 눈치채고, 이른바 自衛의 原則을 國防政策의 基調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1966년에는 軍事經濟를 經濟發展의 主軸으로 삼기 위하여 「7個年計劃」까지 修正하고 3個年 延長하면서 國防, 經濟의 同時建設을 基本路線으로 採択하였다. 이때부터 重工業과 모든 産業生産은 軍事力造成에 集中시키면서 軍事業支出은 갑자기 전체 豫算(GNP의 82%)의 32%에서 重点支出하고 (중래에는 10%線) 軍需事業을 위한 重点投資는 工業部門과 農業部門의 投資比가 47對 18로 圧倒的이며, 그중에서도 重工業對 輕工業의 投資比가 80對 20이라는 重工業軍裝備投資에 全力을 集中하였다.

이같이 軍需産業에의 編重投資하는 北傀의 基本政策路線은 自衛의 軍事政策과 더불어 自力軍需生産에 置重되고 따라서 貧弱한 資源과 産業生産能力 그리고 模倣에도 힘겨운 軍事科學技術 水準을 最大限 動員해서 그나름대로 在來式 武器體系를 自給하는 相當한 水準의 軍裝備生産能力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풀이 된다.

“크라우스, 노어”教授의 軍裝費能力에 관한 見解를 따르면 現代戰을 위해서 軍裝備를 供給하는 産業은 宇宙産業을 위시로 電子, 造船, 武器 및 彈藥業등이라고 規定하고 그重要性은 軍事戰略과 戰爭의 樣相에 따라 달라지는바, ① 核抑止戰略 下에서는 宇宙産業 및

電子産業의 相對的 重要性이 ② 制限된 戰術戰爭의 遂行에 있어서
는 車輛, 兵器, 彈藥工業이 重要하고 ③ 海上勢力의 確保에 重點을
둘 때에는 무엇보다도 造船工業이 重視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實 事例로서 韓國戰과 越南戰과 같은 「制限된 戰術
戰爭」에서 사용된 武器體系의 比重을 對比해 볼때 美國의 軍費調
達에서 나타난 結果는 航空機, 誘導彈, 電子裝備 등 現代式 裝備와
艦艇, 兵器 등 在來式裝備가 總體的으로는 制限戰爭이라는 性格에서 비
슷한 樣態를 보이고, 軍裝備의 內容에 있어서는 現代式裝備에 큰變
化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現代式 裝備 中에서 誘導彈이

韓國戰・越南戰에 對한 美國 軍調達의 變化

(總額에 對한 百分率)

		韓國戰爭 (1952會計年度)	非戰時 (1962會計年度)	越南時 (1967會計年度)
現代裝備	航空機	45.7 %	37.7 %	39.8 %
	誘導彈	1.4	26.3	8.5
	電子裝備	4.5	8.4	4.9
	計	51.6	72.4	53.2
在來式裝備	艦艇	6.3	12.8	9.8
	兵器	32.1	12.8	26.4
	其他	10.0	4.5	10.6
	計	48.4	26.6	46.8
總額(單位;百億「달러」)		28.7	17.9	24.6

韓國戰에 비해 越南戰에서 1.4% 로부터 8.5%로 월등히 높아졌으며, 在來式裝備 중에서 兵器의 比重은 韓國戰 때보다 越南戰에서 32.1% 로부터 26.4%로 크게 低下하고 있다. 이들 두가지 軍裝備의 變化를 제외하면 全般的으로 越南戰은 韓國戰爭 當時와 軍裝備의 活用趨勢가 비슷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전히 自動車, 織物, 고무 및 類似品, 被服購買, 戰車등은 主要한 軍需裝備로 사용되었다.

이같은 韓國戰(1950年)과 越南戰(1964年)에서의 軍裝備活用 趨勢에 비추어 볼때 北傀의 軍需工業의 性格은 그네들의 軍事政策 및 軍事戰略에 비추어서 超現代式 武器로서 誘導彈과 最新戰爆機를 除外하고는 制限된 戰術戰爭의 樣相에 맞는 方向에서 生産되고 發展시켜 왔다고 볼수 있으며, 主로 陸戰을 指向함에 따라 艦艇建造의 面에서 最近의 主力生産하고 있는 中型 및 小型 快速艇을 除外하고는 在來式軍裝備生産이 本軌道에 올라 있다고 할것이다.

1. 北韓의 軍需産業能力

北傀는 軍需産業의 開發에 있어서 이미 日帝時 부터 軍需重工業 및 軍兵站基地로 開發된 北韓地域의 産業立地的인 基盤 위에다 앞서 叙述해 온 그네들의 軍事戰略에 対応하는 일체의 制度와 經濟建設에 따라 重工業優先主義, 軍需工業偏向의 工業立地를 配置하고 있다.

軍需工業의 配置는 이에 從屬되는 産業立地配置와 聯關시켜서 東西海岸地域에 첫째 東部區- 製鐵, 製鋼 등 重工業과 窒酸, 火藥 등 化學工業(淸津金策 <城津>, 咸興 등 重化學工業基地,) 그리고 造船工業과 水産物加工業地域 등, 둘째, 西部區- 石炭, 鐵鉍石, 石灰石 등과 水力電氣에 의한 電氣化學工業地域(新義州, 平壤, 海州의 鐵鋼, 시멘트 및 重石의 特殊鋼工業基地), 그리고 셋째, 완전한 軍需工業地帶로 配置되어 있는 中部內陸區----- 20 餘個의 兵器工場, 工作機械, 트럭터 등 機械工業地域(滿浦, 前川, 熙川, 江界, 長江 등.), 이상과 같이 나누어지는바 例를 들어 「9月紡織」工場이 바로 軍被服工場인 것처럼 軍需工業은 一般産業속에 같이 섞여 있다.

1970年代 이후 6個年計劃에서는 특히 軍需重工業이 一般經濟建設의 主力을 이루고 있는 狀況은 그들의 經濟計劃의 重工業基本課業에서 그대로 찾아 볼수있다. 즉 7個年計劃에서 重工業基本課業 7個事項은 ① 電力工業 ② 石炭工業 ③ 鉍業 ④ 金屬工業 ⑤ 機械製作工業 ⑥ 化學工業 ⑦ 建材工業등인바 6個年計劃에서 重工業基本課業 8個事項은 완전히 兵器基礎工業으로 짜여져서 ① 電力工業 ② 採掘工業 ③ 冶金工業 ④ 機械製作工業 ⑤ 船舶工業 ⑥ 化學工業 ⑦ 製藥 및 醫療器具工業 ⑧ 建材工業으로 전혀 그 構成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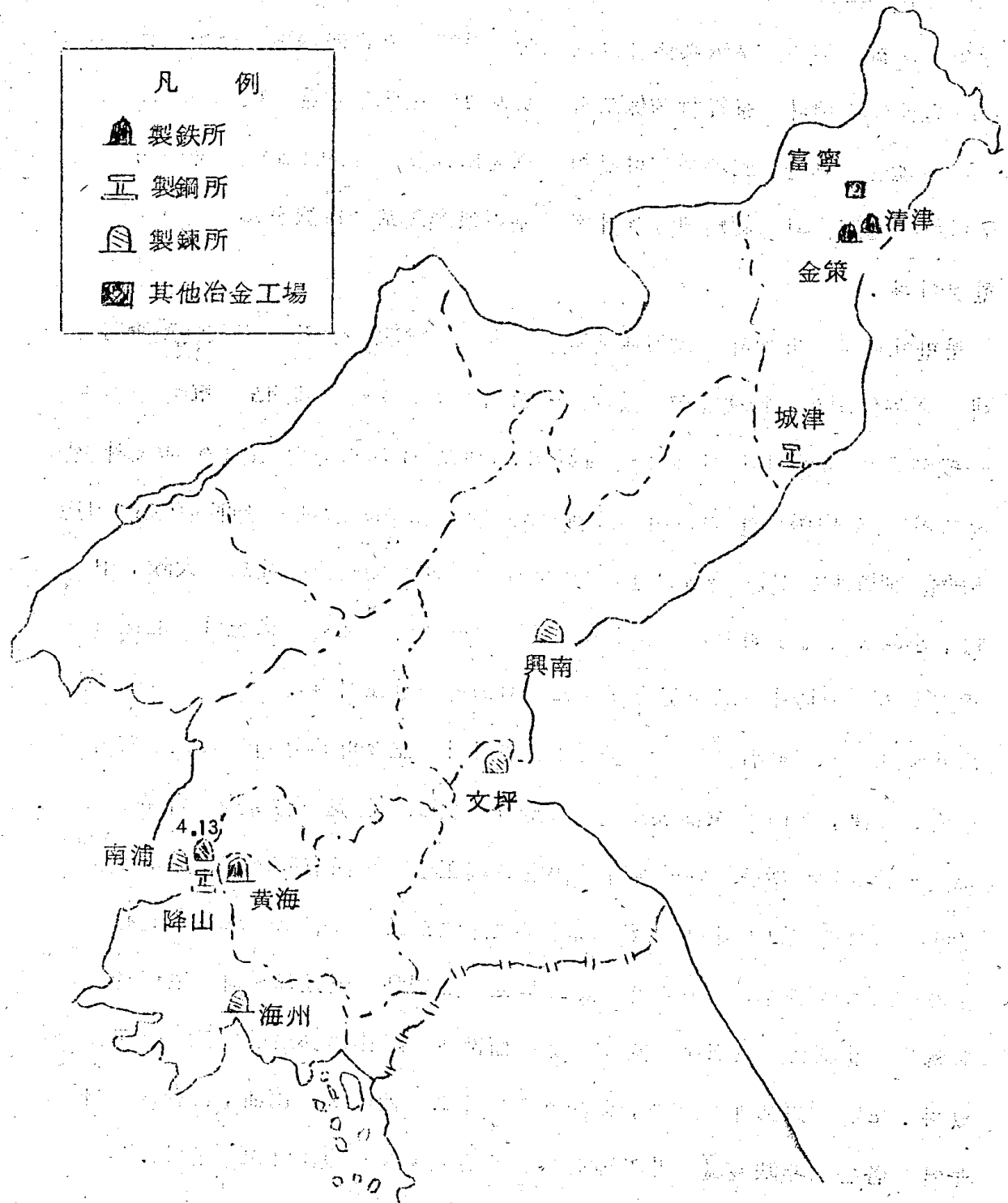
한편 北傀의 軍需工業力量이 冶金機械, 船舶 및 製藥 등 面에서 深化되고 있다는 事實을 立証해 준다고도 말할수 있을 것이다. 軍事的인 意義를 附與해 볼때 具體的으로 冶金은 兵器資材로서, 機

械製作은 兵器生産機器로서 船舶은 戰鬪用船舶으로서 軍需工業을 이루며, 그外 電力生産은 地下軍事施設의 "에너지"用으로, 鉞業分野의 採掘工業은 高級兵器의 購入을 위한 外貨獲得用 輸出 및 國內兵器生産用의 原資材確保로서 그리고 化學工業은 火藥生産과 食糧生産을 위한 肥料등 다같이 軍需調達을 目的으로한 뜻에서 구대여 重工業의 範疇에 넣어서 基本課業으로 採択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北傀의 産業體制는 戰爭 勃發時 모든 産業이 一時에 戰時體制로 轉換할수 있게 짜여져 있다는 面에서도 軍需産業과 一般産業은 併存되어 있다고 할것이며, 실제로 工場建設에 있어서 數地의 선정까지도 空中爆撃을 피해서 山間僻地의 溪谷地 帶나 그것도 地下에 主된 生産 施設을 設置하고 있는 것들 또한 勞動者들의 作業編制 까지도 大隊, 中隊, 小隊등 軍事編制를 取하고 있는 一聯의 모든 狀況이 北傀의 重工業은 一切가 軍需工業이라고 看做될 정도이다.

北傀의 金屬·冶金工業들은 다음圖에서 보는바와같이 製鐵所로서 金策, 淸津, 413, 黃海製鐵所를 들수 있고 庄延鋼材만을 다루는 降山·城津製鋼所등 다섯개의 黑色金屬工場을 保有하고 있다. 地理的인 條件을 고려해서 西部圖과 東部圖으로 나누고 또한 既存設備가 鐵鋼生産에 置中되어 있으므로 貧弱한 庄延鋼材의 生産을 위해서 별도로 東部に 城津 및 西部에 降山製鋼所를 設置하고 있다. 또한 東부에 興南, 文坪에 그리고 西部에 南浦, 海州로 나누어 各各 非鐵金屬 및 稀有金屬 製鍊所를 設置하고 있다.

北韓的主要金屬工場分布圖



北傀의 兵機工業에 직접 寄与하는 機械工場과 銃砲, 戰車, 軍用車輛 및 艦艇造船所등은 다음 圖와 같이 대충 그 分布를 살펴 볼수 있거니와 軍需産業으로서 約30餘個에 달하는 彈藥 및 爆藥工場을 가지고 있고 軍用油類를 調達하는 精油所도 適正하게 配置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대개 推定컨데 北傀에는 平時에도 完全하게 軍裝備生産工場으로서 彈藥工場 25個 小銃 및 大砲工場 6個所, 火藥工場 2個所, 戰車工場 2個所, 軍用車輛工場 2個所, 造船所 6個所 및 精油工場 1個所등 都合 44個所の 軍需工場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機械 및 트랙터工場만도 19個所に 達하고 軍需工業과 併行해서 76年에도 施設擴張과 大型重工業機械工場을 계속 増設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다음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75年, 76年에도 蓄電池工場, 精密時計工場의 新設을 推進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貨物自動車, 空氣壓縮機, 試錐機 및 굴착기, 電動機, 發電機生産의 倍增計劃이 發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보다 機械工業分野의 兵器工業은 더욱 深化시키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北傀의 兵器生産能力은 어느만한 段階에 접어들어 軍事力量은 어느程度로 看做되고 있는가. 軍裝備産業 中에서도 특히 兵器生産은 金屬機械工業의 産業力量과 特殊鋼製練등의 系列工程이 鉍石精鍊에서 부터 産業潛在力으로 基礎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設備나 科學技術이 다같이 生産彈力性은 대단히 적다.

첫째 北傀의 경우 兵器工業은 이미 日帝가 남기고간 産業力量

主要事業計画 및 実績

区分	75 年	76 年
化学	○ 青年化学総合工場建設促進	○ 青年化学総合工場建設에 拍車
建材	○ 順天시멘트工場 300 萬屯 能力의 操業 拡保	○ 順川시멘트工場建設完工 및 生産保障
機械	○ 트럭터 및 自動車 附屬品 蓄電池・타이어 工場의 新規 建設	○ 蓄電池・腕時計 工場의 拡 充
運輸	○ 平壤 - 沙里院, 熙川 - 古仁 平壤 - 徳川 電鉄化 完了 ○ 球場 - 八院, 北青 - 徳城 水橋 - 長淵 鉄道 広軌化	○ 清津 - 茂山間 鉄道 電化
採取	○ 茂山 鉍山 拡張 및 其他 鉍 의 拡充	茂山 鉍山 開發・拡張 ○ 檢山 鉍山 開發 集中
電力	○ 西頭水 2 号 發電所 建設	○ 清川江・大同江 發電所 建 設의 積極 推進 ○ 西頭水 發電所 2 段階
金属	○ 金策製鉄所 大 圧 延 施設 및 4 号 鉸炭炉 完工	○ 金策製鉄所의 大規模 熱間 圧延工場 建設

資料 ; 1. 北傀最高人民會議第 5 期第 5 回會議 (75 年)

2. 北傀最高人民會議第 5 期第 6 回會議 (76 年)

을 이어받고 政治的인 關心이 北傀 政權樹立時 부터 이에 置重해서 韓國動亂時에 個人基本火器와 在來式地上武器를 生産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內容은 대개 銃砲類로서 機關短銃, AK小銃을 비롯해서 手榴彈, 小銃彈, 迫擊砲彈 그리고 對戰車로켓트砲등이며 이들 武器體系로서 最小限 中隊地上作戰의 基本火器는 되는 정도이다.

둘째 60年代初에 北傀의 軍事戰略이 四大軍事路綫을 主唱하면서 重火器銃砲彈藥을 生産하는 段階로 접어들어 輕機關銃, 重機關銃 및 無反動銃 및 82미리 迫擊砲와 各種砲彈을 生産하여 聯隊地上軍作戰을 遂行할 정도의 武器體系가 生産된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北傀가 모든 財政規模를 軍裝備生産에 支出하던 6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地上軍大部隊戰術作戰을 遂行할 能力的 兵器生産과 海軍力增強에 集中해서 海軍沿岸作戰을 遂行할 武器生産에 突入한것으로 알려져 특히 海軍 魚雷艇, 高速魚雷艇, 砲艦의 建造와 放射砲및 手射砲의 生産이 可能的 段階에 進入한것으로 推定되었다.

넷째 北傀의 軍需産業能力은 70年代 以後에 들어와서 韓國戰爭性格에 비추어본 兩侵作戰을 地上 및 海上에서 遂行할 수 있는 정도의 次元높은 技術兵器를 開發하고 航空機의 "라이센스" 生産을 開始했다는 報導까지 들려오고 있다. 日本 「産業經濟新聞」 (76.4.29日字)이 報導한바에 따르면 最近에 北傀는 中蘇支援없이 탱크의 量産體制를 갖추고, 潜水艦 2隻, 護衛驅逐艦 (1,500噸) 2隻을 建造했으며, MIG21 戰鬪機 3台를 "라이센스"生産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한바 있다. 戰鬪機에 대한 事實如否는 確

認할길이 없으나 70年代에 와서 戰車(T59 模倣型) 裝甲車(中共 M1967 改良型)를 비롯해서 水陸兩用車, 護衛驅逐艦을 生産하고 그의 低性能 誘導彈(프로그)과 航空機附品을 만드는 水準에 있지 않는 가 보고 있다.

다섯째 北傀의 顕在化된 모든 軍需生産能力을 産業潛在力에 비추어 判斷해 보면 80年代에 가서는 高水準의 軍事科學技術水準을 모방해서 高性能長距離誘導彈과 戰術核武器 및 光學武器나 電子裝備 武器를 開發할수 있지 않겠는가 觀測되며, 그만큼 軍事潛在力은 지금 추세로 展望된다고 볼것이다.

2. 北韓의 國防資源配分

國家의 資源이 大砲나 빵이나 하는 兩面에서 資源配分이 있게 마련인데 北傀와 같이 國家豫算속에 独占해서 國家資源을 GNP의 80% 以上 장악하는 경우 모든 資源은 軍事目的에 의해서 大砲에 配分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北傀는 이같은 國家豫算支出形態를 1966年 부터 72年 까지는 직접 軍事費項目만해도 全體의 32%를 占有하였으나 南北對話 이후 16%線으로 公布하여 이를 지극히 은폐하고 있는 實情이다.

國防資源配分은 대개 이를 分類할때 運用費와 投資費로 나누고 運用費는 다시 兵員管理費(軍服務要員의 俸給, 給食, 輸送費등)와 運用維持費(軍屬雇傭人의 給與, 事務用品, 醫療器具, 燃料部品, 消耗性費用,)로 나누어 진다. 또한 投資費는 設備投資費(兵舍, 飛行場,

誘導彈基地設置費, 施設物 建設費등) 와 軍裝備調達費(전투기, 유도탄, 함정, 탱크, 항공 총포 및 탄약등) 그리고 研究開發費(군장비의 발명 및 기술개발등)로 大別된다.

軍事力の 造成과 運用에 있어서 現代化를 추진할수록 軍裝費調達費와 兵員管理費 및 研究開發費는 기하급수적으로 增大되게 마련인데 韓國戰爭時 美軍의 運用費構成은 52.6% 이었고 越南戰에서도 54.7%로 큰 比重을 차지 하고 있다.

北傀 軍事力이 비록 共產主義軍隊編成을 지니고 精神戰力の 강조

北韓豫算의 歲入 . 歲出

(單位: 北韓通貨 萬원)

年 度	歲 入		歲 出	
	金 額	對前年比 增 加 率	金 額	對前年比 增 加 率
1 9 7 1	635,735	19.0	630,168	24.0
1 9 7 2	743,030	16.9	738,861	17.2
1 9 7 3	859,931	15.7	831,391	12.5
1 9 7 4	1,001,525	16.5	967,219	16.3
1 9 7 5	1,158,630	15.7	1,136,748	17.5
1 9 7 6	1,251,321	8.0	1,251,321	10.1

資料: ① 71~74年 極東問題研究所刊 <國際問題> 76年6月号 P. 97

② 75~76年 北韓最高人民會議第5期第6回會議 發表

에 의해서 好戰性과 軍事費節減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現代軍裝備의 調達 및 이의 運用에 있어서는 그나름대로 莫大한 費用支出을 無視할수 없을 것이다.

1975 年에도 北傀豫算支出은 113 億 6 千 7 百萬圓이며, 軍事費支出은 16.4%인 18 億 6 千 萬圓에 不過한것으로 發表되고, 1976 年에는 豫算支出 54 億 2 千 2 百萬弗에서 軍事費는 16.5%인 8 億 9 千 5 百 萬弗 (朝鮮日報 1976.4.29 日字)로 報導되고 있다.

그렇다면 北傀의 常備軍이 總 48 萬名으로 알려져 있으며 現代軍裝備를 계속 軍需産業으로 生産, 開發하고 있고, 이를 軍事力에 裝備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軍事力의 運用費와 投資費를 불과 9 億弗 정도의 年間 軍事費支出로 감당해 낼수 있겠는가.

軍事費支出推移

(單位; 北韓貨 萬圓)

年度	区分	豫算支出 總 額	軍 事 費	稱 成 比 (%)
1 9 7 1		630,168	195,982	31.1
1 9 7 2		738,861	125,606	17.0
1 9 7 3		831,391	128,188	15.4
1 9 7 4		967,219	155,722	16.1
1 9 7 5		1,136,748	186,427	16.4

資料; 北韓 各年度最高人民會議發表

北傀式의 軍事費內訳은 ①兵力維持費 (給料, 食料, 被服等) ②部隊維持費(一般經費, 建設工事費) ③戰鬥力增強費(兵器購入 兵器管理, 燃料, 彈藥費等) ④特殊費 ⑤軍需工場 運營費 등으로 区分 되는데 이에따라 48萬常備軍의 所要軍事費를 推定 計算해 보면 첫째, 一般軍事費 8억 9千萬弗, (21억 3천 만·北韓원) 둘째, 兵器工場運營費 7億 6千萬弗(약 18억·北韓원)으로 集計 되는바 이것만해도 都合 17억 5千萬弗(39억 7千萬·北韓원)으로 計上되어, 그들이 말하는 18억 6천萬원 만으로는 상당한 軍事費支出이 隱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특히 現代 軍裝備開發을 위한 投資費는 完全히 다른 項目에서 支出되는 것으로 判斷되어 실질 軍事費支出은 全体豫算의 32%水準은 계속比重을 占하고 있지 않겠다가 생각 되고, 實際 軍事費는 그들이 主張하는 8억 9千萬弗이 아니라 約 18억弗 以上인것으로 推定된다. 이른바 北傀豫算의 歳出內訳 중에서 人民經濟費나 社会文施策費나 行政管理費에 얼마든지 은폐시키고, 단순히 軍事費支出이라고 發表된 額數는 兵力維持費만을 計上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軍事費의 最大支出限界는 GNP의 18~20% 인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北傀가 1966~72年 까지는 30%以上 支出하다가 갑자기 16%만을 支出하기는 어려우며, 現有軍事力의 限度内에서는 国防資源配分을 은폐하고 있는바, 이로서 볼때 北傀의 国防資源의 年平均配分 比率은 계속해서 GNP의 30%線이 아닌가 보고 이같은 추세는 戰時經濟의 運營이라고 規定할 것이다.

七. 北韓의 對外貿易과 經濟潛在力

北傀와 같은 經濟的으로 開發途上에 있는한 集團이 비록 巨大한 核能力을 除外한다 하더라도 超現代化된 軍事力을 開發하기 위한 經濟的 및 科學的 潛在力은 극히 可憐하다. 小規模의 國民總生産 미약한 産業能力 그리고 科學技術上的 低水準이 關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軍事力과 상당한 軍事潛在力을 行使할수 있는 方案을 첫째 強大國으로 부터 近代的인 武器와 軍事科學技術 및 軍事訓練을 導入한다든지 둘째 産業力이 越等한 先進工業國家의 軍需品과 援助 및 軍需産業用프랜트 및 原資材들을 導入하므로써 크게 發揮할수 있다.

이같은 뜻에서 武器輸入을 비롯한 對外貿易은 經濟的 軍事潛在力을 培養하는 關鍵이 된다.

北傀는 蘇聯을 비롯한 主要 共產國家들로 부터 軍事援助條約을 締結하고 많은 武器等 即, 戰車, 艦艇, 誘導彈, 航空機를 導入하고 또는 技術免許(license)를 받아 高度의 武器生産에 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直接的인 對外武器輸入 및 "라이센스"生産 이외에 一般産業 潛在力을 복돋기 위한 對外貿易, 그리고 이들 輸入財源을 補償하는 外貨稼得物資의 輸出能力은 海外資源을 軍事潛在力에 活用하는 面에서 重要하다.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北傀의 各種 戰鬥機는 蘇聯과의 軍事支援條約에 의해서 導入하고 있는바 北傀가 保有한 780台的 空軍力의

維持費만도 1974年 蘇聯의 對外武器援助 價額을 適用해 볼때 年間 3억 2千 7百萬弗이 所要되고, 導入價格은 台當 MIG 21 機는 1百53萬弗, SU-7 機가 98萬弗등 高價를 拂여 確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武器를 自家生産 하느냐 또는 對外貿易에 依存하느냐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軍事潛在力에 비추어서 實用的인 몇가지 考慮要素가 影響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는 時間的 緊迫性으로서 潛在的 敵對國과 對峙하기 위한 要求 때문에 最短時日內에 軍裝備을 輸入하는 것과

北隴空軍力 및 維持費

機 種	購 買 價 (千 弗)	臺 數	維 持 運 營 費 (百 萬 弗)
미 그 15~17	210	300	18.9
미 그 19	1,000	100	30.0
미 그 21	1536.6	150	69.2
Su-7	984.6	30	8.9
복격기, 훈련기, 수송기, 헬기, 기타		약 200	200.0
計		약 780	327.0

資料; 朝鮮日報 (1976.9.5)

註; 購買價는 1974年 北隴의 第3回販賣價, 실제 價格은 훨씬 高價임

물체, 武器의 適合性문제로서 山岳戰用이라든지 高性能武器를 必要로 할때 이고 셋째, 裝備의 數量이나 價值性의 문제로서 絶對量의 確保를 위한 경우도 小量이기 때문에 輸入하는 경우도 있다.

北傀의 경우는 첫째 時間의 축박 위에서 絶對量의 確保를 위해서 朝鮮으로 부터 多量의 武器를 導入하였고 둘째 北傀生産이 不可能한 戰鬪機와 誘導彈等 超現代式 武器를 도입하였으며 셋째 이들 對蘇武器導入은 美國과 같이 無償贈與形式이 아니라 主로 武器 販賣에 依存하였으며, 長期延払條件의 輸入도 많았지만 바터貿易을 하였고 넷째 一部 蘇·中共등 外國技術免許의 “노·하우에 의한” 라이선스¹生産(例를 들어 誘導彈, 裝甲車 艦艇은 中共에서 戰車, 潛水艦, 航空機는 朝鮮에서 등등)을 하고 部品, 代價品 및 追加品만을 供給 받아서 軍事力 建設에 活用하고 있는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北傀의 軍事潛在力으로서의 對外貿易은 他國資源導入을 위한 一般貿易과 輸入財源을 마련키 위한 外資金融이 더큰 문제점을 提起하고 있다고나 할것이다. 北傀의 경우 직접적인 武器輸出入은 전혀 資料가 없어 具體적인 內容을 把握하기 어렵거니와 對外貿易이나 外換事情도 詳細한 內容을 알기는 어렵다.

北韓의 貿易은 規模面에서는 별로 貿易依存度가 낮고 總額이 적은 편이지만 共產黨 끼리는 바터貿易이나 求償貿易에 의한 清算去來를 하고, 自由世界와는 友好貿易에 의해서 補償貿易 (Compensative Trade)을 展開하지만, 物品目錄表와 數量을 定해놓고 推進하며 對外貿易은 엄격하게 國家의 目標과 附合시키므로 最近의 貿易

推移는 軍事目的에 맞추어서 軍需戰略輸入과 輸入超過라는 두드러진 特徵을 찾아볼수 있다.

다음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北韓은 1970年以來 輸出入貿易収支의 異例的인 累積超過를 示顯하고 있고, 1971年에 2억 3千萬弗의 赤字를 비롯해서, 1973년에는 3억 2千萬弗 그리고 1974년에는 北韓의 輸出 5억 7千萬弗에 대해서 輸入은 11억 5千 8百萬弗로, 赤字幅은 5억 8千 8百萬弗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輸入超過現狀은 共產國貿易에서 보다는 自由世界와의 貿易에서 주로 훨씬 큰 輸入赤字를 나타내고 있어, 1974년에 自由世界貿易에서 輸出 2억 8千萬弗에 輸入 8억 1千萬弗로 5억 4千萬弗을 赤字로 내고 75年에도 3억 6千萬弗의 赤字를 내고 있다.

또한 北韓貿易의 地域別 對象國數는 1975年 現在 91個國에 달하고, 合計總額은 輸出 5억 7千萬弗에 輸入 11억 5千 8百萬弗로 17억 3千萬弗에 달하고, 이중 自由國貿易은 全體의 63%를 占有하고 있다.

그러나 実績이 비교적 크고 軍事的 經濟潛在力을 促進하기 위한 國別貿易은 1974年 및 1975年에 있어서 共產國에서는 소련, 루마니아, 유고 등이고, 自由世界에서는 日本의 貿易量이 75年 2억 4千 5百萬弗, 西獨이 1억 3千萬弗, 프랑스 6억 2千萬弗 및 스웨덴이 7억 3千萬弗로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北韓의 對自由世界貿易의 輸入은 거의가 重化學工業

北韓の对外貿易輸出入 (1970 ~ 75 年)

(単位: 1,000 弗)

	1970年	1971年	前年比 (%)	1972年	前年比 (%)	1973年	前年比 (%)	1974年	前年比 (%)	1975年	前年比 (%)
輸出合計											
北韓の輸出	320,085	309,812	- 3.2	357,708	+ 15.5	394,234	+ 10.2	570,563	+ 44.7		
北韓の輸入	381,028	542,719	+ 42.4	577,178	+ 6.3	714,800	+ 23.8	1,158,700	+ 62.1		
合計	701,113	852,531	+ 21.6	934,886	+ 9.7	1,109,034	+ 18.6	1,729,263	+ 55.9		
貿易収支	- 60,943	- 232,907		- 219,470		- 320,566		- 588,137			
共産圏											
北韓の輸出	251,997	239,042	- 5.1	273,337	+ 14.3	252,600	- 7.6	291,800	+ 15.5		
北韓の輸入	325,365	482,136	+ 48.2	434,255	- 9.9	383,200	- 11.8	345,400	- 9.9		
合計	577,362	721,178	+ 24.9	707,592	- 1.9	635,800	- 10.1	637,200	+ 0.2		
貿易収支	- 73,368	- 243,094		- 160,918		130,600		- 53,600			
自由圏											
北韓の輸出	68,088	70,770	+ 3.9	84,371	+ 19.2	141,634	+ 67.9	270,763	+ 96.8	213,300	- 23.5
北韓の輸入	55,663	60,583	+ 8.8	142,923	+ 35.9	331,600	+ 132.0	813,300	+ 145.3	575,800	- 29.2
合計	123,751	131,353	+ 6.1	227,294	+ 73.0	473,234	+ 108.2	1,092,063	+ 130.8	789,100	- 27.7
貿易収支	+ 12,425	+ 10,187		- 58,552		- 189,966		- 534,537		- 362,500	

(出所) Quarterly Economic Review 1972. Current Scene, Hongkong 1973-No. 10. IMF Direction of Trade.

UN貿易統計年鑑 対外貿易, 通商弘報 (1976.7.2) 日大蔵省通関統計

(註) 1973-1974年数字は中共舎不包含

北韓의 地域別貿易構成 (1970~74年)

(單位: 1,000 弗)

	1970年			1971年			1972年		
	北韓輸出	北韓輸入	合計	北韓輸出	北韓輸入	合計	北韓輸出	北韓輸入	合計
總額	320,085 (100.0)	381,028 (100.0)	701,113 (100.0)	309,812 (100.0)	542,719 (100.0)	852,531 (100.0)	357,708 (100.0)	577,178 (100.0)	934,886 (100.0)
共產圈	251,997 (78.7)	325,365 (85.4)	577,362 (82.3)	239,042 (77.2)	482,136 (88.8)	721,178 (84.6)	273,337 (76.4)	434,255 (75.2)	707,592 (75.7)
自由圈	68,088 (21.3)	55,663 (14.6)	123,751 (17.7)	70,770 (22.8)	60,583 (11.2)	131,353 (15.4)	84,371 (23.6)	142,923 (24.8)	227,294 (24.3)
	1973年			1974年			備考		
	北韓輸出	北韓輸入	合計	北韓輸出	北韓輸入	合計			
總額	394,234 (100.0)	714,800 (100.0)	1,109,034 (100.0)	570,563 (100.0)	1,158,700 (100.0)	1,729,263 (100.0)			
共產圈	△ 252,600 (64.1)	383,200 (53.6)	△ 635,800 (57.3)	△ 291,800 (51.1)	△ 345,400 (29.8)	△ 637,200 (36.8)			
自由圈	141,634 (35.9)	331,600 (46.4)	473,234 (42.7)	278,763 (48.9)	△ 813,300 (70.2)	1,092,063 (63.2)			

(資料): Quarterly Economic Review 1972. UN貿易統計年鑑. IMF Direction of Trade.

全現外國貿易. 日大藏省通関統計에서 作成

△印 - 通商弘報 1976年7月2日

(注) () 內는 構成比

1973~75年 總額 및 共產圈은 中共을포함

北韓의 地域別・國別貿易実績 (1974~75年)

(單位: 100萬弗)

	北韓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 入 合計				
	1974年	1975年	1974年	1975年	1974年	1975年			
	前年比(%)		前年比(%)		前年比(%)				
共 産 圏	230.68	227.59	-13.4	293.12	299.40	+21.4	523.80	526.99	+6.1
소련	196.90	200.21	+1.7	256.37	246.47	-3.9	453.27	446.68	-1.5
루마니아	18.99	18.99	-	31.62	31.62	-	50.61	50.61	-
유고	14.79	8.39	-43.3	5.13	21.31	4.15倍	19.92	29.70	+49.0
西 歐 諸 國	77.90	101.63	+30.5	316.01	264.53	-16.3	393.91	366.16	-7.0
프랑스	35.27	38.20	+8.3	108.99	24.62	-77.4	144.26	62.82	-56.5
西 獨 國	18.00	46.99	2.6倍	64.55	83.25	+29.0	82.55	130.24	+57.8
英 國	4.30	2.85	-33.7	33.37	1.67	-95.0	37.67	4.52	-88.0
이탈리아	3.84	2.23	-41.9	5.57	13.15	+136.0	9.41	15.38	+63.4
벨기에	6.48	1.34	-79.3	19.93	6.92	-65.3	26.41	8.26	-68.7
폴란드	3.19	4.29	+34.5	10.82	1.50	-86.1	14.01	5.79	-58.7
스위스	0.23	0.42	+82.6	3.45	11.13	3.2倍	3.68	11.55	+213.9

	北 韓 의 輸 出				北 韓 的 輸 入		輸 出 人 合 計		
	1974年	1975年	前年比(%)	1974年	1975年	前年比(%)	1974年	1975年	
스웨덴	0.23	0.44	+91.3	9.11	73.16	8.0倍	9.34	73.60	7.9倍
덴마크	0.34	0.04	-88.2	1.60	22.00	13.8倍	1.94	22.04	11.4倍
핀란드	3.26	0.50	-84.7	31.32	0.08	-99.7	34.58	0.58	-98.3
노르웨이	0.29	1.18	+306.9	-	0.13	-	0.29	1.31	4.5倍
오스트리아	0.80	0.87	+8.8	27.24	26.47	-2.8	28.04	27.34	-2.5
그리스	0.01	0.02	+100.0	-	-	-	0.01	0.02	+100.0
스페인	0.33	0.97	+193.9	-	0.43	-	0.33	1.40	4.2倍
아일랜드	0.16	1.13	7.1倍	0.02	0.02	-	0.18	1.15	6.4倍
폴란드	1.17	0.16	-94.9	0.04	-	-	1.21	0.16	-86.8
아세아 諸 國	188.48	94.85	-49.7	282.78	200.32	-29.2	471.26	295.17	-37.4
日 本	108.82	64.84	-40.4	251.91	180.63	-28.3	360.73	245.47	-32.0
香 港	6.60	6.28	-4.8	4.02	1.851	-54.0	10.08	8.13	-19.3
마레이지아	0.39	1.89	4.8倍	-	-	-	0.39	1.89	4.8倍
싱가포르	7.43	10.89	+46.6	21.08	8.75	-58.5	28.51	19.64	-31.1

	北 韓 의 輸 出				北 韓 的 輸 入		輸 出 入 合 計		
	1974年	1975年	前年比(%)	1974年	1975年	前年比(%)	1974年	1975年	前年比(%)
타 이	0.19	0.17	-10.5	0.18	0.19	+5.6	0.37	0.36	-2.7
버 어	1.23	1.23	-	-	-	-	1.23	1.23	-
인 도	54.70	-	-	-	-	-	54.70	-	-
인 도	3.39	5.74	+69.3	5.29	7.82	+47.8	8.68	13.56	+56.2
파 키 스	5.58	3.81	-31.7	0.30	1.27	4.2 倍	5.88	5.08	-13.6
벵 그 라	0.69	0.69	-	-	-	-	0.69	0.69	-
大 洋 州	0.02	0.03	+50.0	32.24	4.38	-86.4	32.26	4.41	-86.3
豪 州	-	-	-	31.93	4.07	-87.3	31.93	4.07	-87.3
뉴 질 란 드	-	-	-	0.31	0.31	-	0.31	0.31	-
뉴 키 니 아	0.02	0.03	+50.0	-	-	-	0.02	0.03	+50.0
西 아 시 아	5.16	6.59	+27.7	9.88	8.89	-1.0	15.04	15.48	+2.9
이 란 락	-	0.81	-	-	-	-	-	0.81	-
이 란 락	1.19	0.36	-69.7	9.07	8.16	-10.0	10.26	8.52	-17.0
쿠 웨 이 트	1.50	2.30	+53.3	0.81	0.73	-9.9	2.31	3.03	+31.2

	北韓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入 合計		
	1974年	1975年	前年比(%)	1974年	1975年	前年比(%)	1974年	1975年	前年比(%)
	사우디아라비아	1.29	1.94	+50.4	-	-	-	1.29	1.94
레바논	1.18	1.18	-	-	-	-	1.18	1.18	-
아프리카	0.70	1.29	+84.3	-	-	-	0.70	1.29	+84.3
카메룬	0.02	0.10	.5배	-	-	-	0.02	0.10	5.0배
에치오피아	0.04	0.05	+25.0	-	-	-	0.04	0.05	+25.0
케냐	0.40	0.06	-90.0	-	-	-	0.40	0.06	-90.0
탄자니아	0.24	1.08	4.5배	-	-	-	0.24	1.08	4.5배
北 美 州	0.09	0.53	5.9배	48.88	6.38	-86.9	48.97	6.91	-85.9
美 国	-	-	-	0.66	1.10	+66.7	0.66	1.10	+66.7
카나다	0.09	0.53	5.9배	48.22	5.28	-89.1	48.31	5.81	-88.0
中 南 美	0.95	2.04	2.1배	31.06	30.88	- 0.6	32.01	32.92	+ 2.8
아르헨티나	0.01	0.01	-	14.65	8.95	-38.9	14.66	8.96	-38.9
브라질	-	-	-	16.10	16.10	-	16.10	16.10	-
페루	0.02	0.78	39.0배	0.31	5.83	18.8배	0.33	6.61	20.0배
베네수엘라	0.82	1.23	+50.0	-	-	-	0.82	1.23	+50.0
엘쿠아틀	0.10	0.02	-80.0	-	-	-	0.10	0.02	-80.0

(資料) UN貿易統計. IMF Direction of Trade.

(注) 1975年数字는 未調整

北韓斗 対日本商品構成 (1973~75年)

(単位: 1,000 弗)

(北韓斗 輸入)

品目	年別	1973年		1974年		1975年		前年比 (%)
		数量	金額	数量	金額	数量	金額	
総額			100,160		251,914		180,630	-28.3
食料品			149		199		45	-77.4
原料			1,633		536		1,336	2.5 倍
軽工業品			20,286		57,326		22,559	-60.6
繊維品			13,602		35,984		4,486	-87.5
人造纖維	MT	154	100	1,677	3,086	1,064	1,051	-65.9
合成纖維糸	MT	1,194	4,749	2,010	11,613	156	486	-95.8
合成纖維織物	MT	8,255	6,860	17,577	18,601	1,454	948	-94.2
纖維二次製品			1,589		1,947		1,854	-4.8
非金屬鉱物製品			591		1,462		4,477	3.9 倍
其他軽工業品			6,092		19,900		13,596	-31.7
工平製品	MT	96	208	1,029	2,947	1,149	3,370	+14.4
紙・板紙	MT	12,051	3,869	19,797	9,553	12,403	5,376	-43.7
양 類			4		3,602		1,135	-68.5

品目	年別	數量 單位	1973年		1974年		1975年		前年比 (%)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重化學工業品				74,267		190,308		152,430	-19.9
化學品				2,380		10,924		17,426	+59.5
有機化合物				2,612		3,145		1,475	-53.1
化學肥料	MT			-		-	39,000	9,526	-
染料・塗料	MT	400	954	744	260	744	247	407	-45.3
醫藥品			574	1,087		1,087		145	-86.7
人造프라스틱			3,886	3,474		3,474		3,806	+9.6
金屬品			28,670	66,943		66,943		27,546	-58.9
鐵			25,320	60,040	141,637	60,040	29,926	15,276	-74.6
鋼	MT	63,987	4,962	32,395	86,993	32,395	9,163	2,863	-91.2
棒	MT	18,070	-	1,147	3,938	1,147	3	3	-99.7
線	MT		1,371	4,900	12,392	4,900	4,005	1,729	-64.7
厚板	MT	2,409	5,273	6,004	11,012	6,004	8,810	4,532	-24.5
薄板	MT	14,897	803	2,492	8,959	2,492	353	191	-92.7
帶	MT	4,971	9,130	9,860	11,650	9,860	2,413	2,413	-75.5
管・継手	MT	18,178							

金屬製品	3,118		6,642	11,834	+ 78.2
機械・機器	33,217		112,440	107,459	- 4.4
一般機械	16,630		66,435	62,487	- 5.9
農業機械	458		4,095	945	- 69.5
金屬加工機械	1,507		3,813	4,740	+ 24.3
纖維機械	3,115		9,790	6,064	- 38.1
印刷製本機械	90		1,178	489	- 58.5
鈦山・建設機械	690	14	153	4,054	26 倍
加熱・冷却用機器	517	318	8,234	1,433	- 82.6
荷役機械	2,143		18,919	11,856	- 37.3
軸受	183		3,920	10,702	2.7 倍
電氣機械	846	372	1,205	521	- 56.8
重電機械	7,368		18,018	27,497	+ 51.9
通信機器	549		6,334	14,177	2.2 倍
電氣計測機器	2,002		2,701	3,937	+ 45.8
	2,668	5,248	2,541	1,443	- 43.2

品目	年別	數量 單位	1973年		1974年		1975年		前年比 (%)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輸送機械				7,782	23,897		14,812		-38.0
鐵道車輛	台			-	1,137	5	318		-72.0
自動車	台	403	5,361	19,688	805	12,948			-34.2
船舶			2,165	2,399		263			-89.0
精密機器			1,438	4,001		2,663			-34.0
再輸入・特殊取扱品			3,825	3,546		4,259			+20.1

資料：日大藏省通関統計

을 위한 資材 및 軍需戰略商品인데 比해서 輸出은 鉍物原料를 비롯해서 農水產品이 차지하고, 그나마 貿易收支는 엄청난 輸入超過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로 이같은 현상은 6個年計劃期間 동안에 重化學工業과 軍需産業의 量과 質을 높이기 위해서 對外債務의 償還計劃도 없이 마구 機械, 프란트등 資本財를 大量 導入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 또한 종래 共產圈市場 中心의 貿易으로부터 自由市場을 中心으로 하여 先進工業國에는 資本財 輸入市場의 性格을 강화하고, 開發途上國들에게는 商品輸出市場으로 利用해서 外貨獲得率 높이는 특징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慶州地域 工業先進國들로 構成되어 있는 OECD에 대해서도 주요 輸出商品을 보면 水産物 속에 魚介類, 甲殼類 및 軟体動物調味品등과 鉍産物로서 粘土耐火物質, 鉄鉍등 輕工業製品으로는 生糸, 絹, 合成纖維織物, 織物製衣類, 医薬品등으로 微々하다.

이같은 北韓의 輸出商品構成은 對 西獨 및 對 仏 輸出 뿐만 아니라 日朝貿易에 있어서 까지도 마찬가지 이다.

北韓의 對日輸出에서 商品類別로 보면 原料別製品, 非食用原材料, 食料品 및 動物등이 三種에 集中되어 있다. 對日主宗品目は 鉄鉍, 亜鉛鉍, 人蔘酒, 꽃계, 副蚕糸, 天然銅石, 螢石, 長石, 紅蓼등이며 그외 生糸, 塩化비닐, 黒鉛 등이며, 工業製品으로 마그네시움 크링카, 銀塊, 鉛塊등이 있어 대단히 脆弱한 輸出商品構造를 지니고 있다. 이는 北韓이 輸出用國際商品의 開發이 전혀 안되어 있고 또한 輸出드라이브 原理에 따르면 國內의 消費製品 및 一般産業

製品이 전혀 造成되어 있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産業力
量과 資源潛在力은 軍需經濟에 集結한 때문에 輸出構造가 脆弱하고
外貨稼得이 不振하며, 輸入構造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重化
學軍需工業 爲主의 資本財 및 프래트 輸入때문에 貿易收支의 累積
赤字와 對外負債의 累積現象을 深核하게 露呈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
다.

北韓의 對外輸入商品은 對西獨 또는 對프랑스를 비롯해서 對日本
輸入이 主로 石油化學製品類하고 金屬機械製品類들이다. 例로서 對
日輸入의 경우 金屬類로서 棒形銅線材, 厚板, 薄板, 帶鋼 등 鐵鋼類
가 1974年에도 6百萬弗, 그리고 機械製品類로서 1억 1千 2百萬弗,
電氣機械 1千 8百萬弗 및 輸送用機械가 2千 3百萬弗에 達하고, 化
學品이 1千萬弗, 合成纖維類가 3千 6百萬弗로 主宗을 이루고 있다.

以上에서 北韓의 輸出入構造分析에 비추어 볼때 軍需輸入에 따른
貿易收支赤字는 결국 對外 累積負債로 歸結되는데, 그要因을 간추려
보면 첫째, 北韓의 輸入需要 硬直性을 들 수가 있다. 生産設備老朽
化, 非能率化, 技術水準의 低位, 基礎原資材의 不足, 勞動力不足 등이
다같이 莫大한 軍需經濟의 漏損(Leakage)에 의해서 露出되고 이
때문에 급기야는 海外로 부터 設備, 資本材 및 技術導入이 不可避
한 點, 둘째 北韓의 輸出能力이 微力하다는 것으로 輸出商品으로

鐵鉍石 등 鉍物과 原料別製品 등은 生産彈力性이 낮은 데다가 價格變
動은 높아서 74年과 같이 非鐵金屬의 폭락이 있는 경우에 対処가
어렵고 選鉍 및 輸送 등이 다같이 隘路가 많다는 點이다.

最近推計에 따르면 北韓의 對外負債額은 對蘇債務 9억 2百萬弗, 對西方諸國債務 12억 4千 2百萬弗 都合 21억 4千 4百萬弗이라고 한다.

經濟의 軍事的潛在力에 비추어 볼때 北韓의 脆弱한 對外貿易 構造는 더구나 戰時를 假想할때 軍事力의 斷切要素이며, 他國의 軍事資源活用을 不可能하게 만들 것이고, 累積되는 對外債務는 國際金融에 高度의 外國信用借款導入이나 緊急한 軍需物資輸入 및 技術提携에 큰 支障을 出것이다. 뿐만아니라 保有外換의 準備金 不足때문에 모든 一國의 經濟力量의 運用에 伸縮性을 喪失하며 계속해서 新 軍裝備를 提供하고 軍事力을 維持·管理하는 面에서 戰力發揮에 있어 決定的인 障礙가 自招된다고 判斷된다.

八. 結 論

지금까지 北傀의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에 관한 推論의 過程을 통해서 北傀가 一國社會主義的인 軍産複合體의 確立을 통하여 軍事經濟를 營爲하는 몇가지 立論上의 基本法則性을 挑出해 보았다.

그것은 첫째로 恒久的戰爭經濟體制理論으로 提起되는데 共產主義式 特有的 戰爭理論과 이른바 軍事力에 관한 黨軍의 性格이 政治經濟學的인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을 基本骨格으로 組立하는 것을 말하며, 철저한 ①重工業軍需經濟의 優先政策과 ②"아우타로키"를 指向하는 自力更生의 民族經濟와 ③國防·經濟建設의 併進策에 의해서 體系化된다. 오직 戰爭目的의 遂行과 強力한 軍事力の 造成 및 運用을 위한 恒久的戰爭經濟는 곧 恒久的 戰時經濟體制를 樹立하고, 다른 한편 이의 反作用으로서 全經濟力量의 軍事化를 불러 일으켜 北傀 軍事經濟의 必然的인 면서도 避치 못할 運動法則이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北傀의 戰爭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所要되는 戰爭經濟力의 規模는, 어디까지나 南侵에 의한 韓國戰爭을 對象으로 하겠지만 이를 위한 經濟的 戰爭潛在力을 動員할수 있는 餘力은 最大로 어느 만큼 될 것인가를 測定해보기 위해서 北傀의 戰爭經濟力量에 經濟力指數(Economic Power Index), 즉 EPI 指數를 推定해 보았다. 그러한 結果 1975年現在 약 40억弗 程度(個人所得 313弗—最小生存費 160弗×人口 1,590萬名)로 算出되며, 이를 韓國과 比較해 볼때 同年度에 韓國은 60억弗 程度로 약간 優勢하다는 趨勢가 挑出되

었다.

셋째로 北傀의 国力概念에 따른 一般 經濟力量을 보기 위해서 크라우스·노어教授의 經濟的軍事潛在力 (Economic Military Potential) 理論을 援用해서 우선 國民總生産, 즉 自由經濟概念에 立脚한 GNP를 算定해 보고 南北韓 比較의 国力優位の 現存狀態를 점검해 본結果 北傀의 經濟力量을 同等한 美弗貨換算에 根本的인 問題點이 介在해 있는것은 말할나위도 없으려니와 美弗貨를 基準한 同等한 通貨換算조차 종래 70年 基準에 의한 75年의 評価는 誤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判別 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通貨換算은 1975年에 日朝貿易에 의해서 北韓貨 1원이 = 日本貨 150円으로 換算되었고, 同年度에 美弗貨 1弗은 日本貨 270円으로 換算되므로서 결국 北傀와의 通貨換算은 1美弗 = 1원 80전 北韓貨로 平価된다. 이에 따르면 1975年에 北傀의 GNP는 70.2억弗로 종래 53.8억弗 보다 훨씬 높게 平価되며, 同年度에 韓國의 GNP 187억弗이므로 높기는 하나 이중에는 北傀의 重工業 爲主의 GNP에 比해서 3次 서어비스産業의 所得이 勘案된 韓國의 GNP는 약간 優勢한것으로 看做된다고 할것이다.

또한 1人當GNP에 있어서도 通貨換算을 適用해 볼때 北傀는 1975年에 446.5弗로 종래 342弗 보다 높게되고, 韓國의 513弗 보다는 낮지만 北傀가 人口가 적은데다가 國民總生産에 있어서 서어비스産業이 거의 除外된 物量集計方式 이었기 때문에 韓國에 近接하는 經濟力量을 가진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北傀가 軍事力建設에만 GNP의 30% 水準을 消耗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戰爭經濟體制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現有 經濟力量에 비해서 國民經濟의 擴大再生産過程이 長期的인 軍事潛在力을 持續적으로 뒷받침 해주기는 難望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長期的으로 본 軍事力 建設이나 經濟力量의 保持가 어려운 枯渴狀態를 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判斷된다.

셋째,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을 測定하는 動態經濟의 實相은 北傀의 經濟成長速度에 의해서 說明되어 있는데, 北傀가 經濟成長率을 5個年計劃에서 21%, 7個年計劃에서 8.9%로 低調하고, 6年計劃에서 10.6%, 그런데로 高速經濟成長을 이루고는 있다. 이같은 力量은 事實상 韓國에 비해 비슷한 狀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工業成長率로 볼때에는 5個년에 36.6%, 7個년에 12.8% 그리고 6個년에 18.4%로 主로 重工業羣需經濟에 集中 投入되었다. 그런 뜻에서 첫째 住民生活의 極度한 消費抑制속에서 重工業에 集中하고 羣需産業에 現有力量은 크게 投入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클라우스·노어"理論에 비추어 볼때 尙武精神의 고취에 의한 好戰的 精神戰力은 強化되므로서 軍事力量을 높이 할수 있으나 둘째로, 長期的인 面에서 國民經濟力量의 再生産潛在力을 장식 시키고, 또한 高速成長率에도 불구하고 GNP의 分母가 워낙 脆弱하기 때문에 ①年平均 10%의 增加分 그 자체의 軍事力建設에 대한 評價는 ②問題點이 많은 狀況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로 北傀의 産業力量과 軍事潛在力の 評價인 重工業優先의

政策은 우선 工業内部의 破行性を 露呈시키고, 重工業역시 兵器産業
즉 機械工業을 主軸으로한 金屬精鍊 및 特殊鋼의 偏倚生産 때문
에 이分野의 現有 産業力量은 상당한 水準에 있다고 推定된다.
그러나 石油化学 및 電子工業의 不備에 따른 重工業을 비롯한
各種工業部門 内部의 不均衡과 더 나아가서는 輕工業과의 링크문제
그리고 農業部門과의 連鎖性的 喪失이 經濟力量만이 아니라 軍事潛
在力을 弱화시키며, 특히 社會間接資本 즉 輸送部門의 脆弱性은
經濟的軍事潛在力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北傀의 軍需産業力量인데 現有 軍裝備生産의 力量은
그동안의 漸進的인 各段階別 軍事科學技術의 모방에 따른 提高로
서 1970年 中半 이후 小銃, 重機関銃, 各種砲 및 彈藥을 自体
生産하고 여기에 곁들여 약간의 誘導武器 및 中型艦艇과 戰車
그리고 라이선스生産에 의한 航空機의 生産이 이루어 졌다는 報
道가 나도는 정도로 적어도 大部隊地上作戰과 海上作戰 및 약간
의 空軍力이 포함된 戰術作戰을 遂行할 정도의 軍事力量을 지니
고 있다고 보겠다. 다만 國防資源配分에 있어서 힘겨운 軍需生産
이나마 GNP의 30%로 推定되는 資源配分으로 인하여 經濟的軍事
潛在力은 現有 軍需産業力量을 支持하기에 어려울것으로 判斷된
다.

마지막으로 北傀의 對外經濟의 深刻한 不均衡이 문제의 關鍵이
되고 있는데 軍事力의 集中建設을 위한 輸入超過와 重工業 및
一般産業設備의 考朽를 비롯한 産業力量을 培養하기 위한 對外貿

易의 극심한赤字와 累積되는 對外債務가 國際金融의 能力을 마비시키고, 他國資源의 活用을 完全히 斷切시킨 危機에 直面하 므로서 결국 對經濟力量의 低落과 軍事潛在力의 本質的인 破壞를 歸結지우고 있다고 할것이다.

結局 北傀의 經濟力量과 軍事潛在力은 처음부터 國家目標와 軍事戰略이 基本路線으로 設定된 一國社會主義의 軍産複合體系에 의해서 指導되어 "아무타로키"의 自力更生이 "이데오로기"로서 結合된 恒久的 戰爭經濟原理에 쫓기다 보니 現有 軍事力量의 維持도 어려울 정도의 經濟的 軍事潛在力의 잠식을 自招했다고 集約된다.

参 考 文 献

- (1) Klaus Knorr, Military Power and Potential, D.C, Heath and Company, Lexington, Mass, 1970 [크라우스 . 노어, 「軍事力과 軍事潜在力」1970 [크라우스 . 노어, 「軍事力과 軍事潜在力」 国防大学院安保問題研究所 1976]
- (2) Sang-Woo Rhe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Korea University Asiatic Research Center 1977.6.
- (3) IISS, Military Balance(1976 ~ 1977)1976
- (4) 「朝鮮問題知識のすべて」(経済編 軍事編) 1977年版, 実業の世界社 昭52
- (5) 「北朝鮮の産業と資源」 日本貿易振興会 海外経済情報センター 1972.5
- (6) 「世界軍事資料」(1975 ~ 73) I. II. III. 戦略問題研究所 . 原書房 1974
- (7) 本橋渥 「朝鮮社会主義経済の理論と政策」『アジア経済』 1974
- (8) 難波康貞 「北朝鮮の経済建設と権力構造の変化」 「軍事研究」 1975.10

- (9) 「対峙する南北の動員体制」 『国防』 8月号 昭50
- (10) 『北韓総鑑』 (45.~68) 共産圏問題研究所 1969
- (11) 『世界共産圏総鑑』 極東問題研究所 1976
- (12) 『北韓全書』 上, 中, 下 極東問題研究所 1974
- (13) 崔栄博 「北傀の 産業立地」 『北韓』 1976.1月号
- (14) 白恒基 「經濟構造上の 軍需工業と 軍事費」 『北韓』 1975.
2月号
- (15) 尹明善 「經濟計劃蹉跌と 技術革新」 『北韓』 1975.10月号
- (16) 李秉竜 「戦時体制下の 北傀經濟」 『国際問題』 1974.11月号
- (17) 徐南源 「北傀工業建設の 正体」 『北韓』 1976.2月号
- (18) 「南北韓社会文化現況比較, 韓国開発研究院 『世代』 1976.10月号
- (19) 「南北韓社会文化現況比較, 平和統一研究所 1975.12.
- (20) 「北傀6個年計劃綜合評価」 国土統一院 1976.8.
- (21) 「北韓の 消費構造と 그水準」 金完淳 高大亜細亜問題研究所.
通券 55 1976.1

(22)「解放後 南北韓의 地域間貿易에 관한研究」 張和洙，高大 亜細亜
問題研究所通券 53. 1975.

(23)高瀬浄 「社会主義経済管理システムと 朝鮮社会主義」『共産圏問題』
股ア協会 1972.12

(25)青田学 「波乱の北朝鮮を其の衝ぐ」『軍事研究』1976.12

(26)『世界年鑑』 1977年版 共同通信社

(27)『読売年鑑』 1977年版 読売新聞社

(28)「戦略情報資料」(国際戦略研究所，『軍事力均衡』 77-78) 合同
参謀本部 1977

